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끊임없는 유혹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0월 28일 (토) 제 165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경으로 돌아가자” ...결국 세상 변화시켰다!

9Marks, 교회사 변화시킨 종교개혁의 영향력 소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며 삶의 지혜다. 역사는 시대의 산물이며 미래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징검다리기도 하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인간을 위해 무조건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섭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한다.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Scripture)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Reformation)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던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성찰을 95개의 조항으로 담아 게시했다. 그의 의도는 일개 학자로서 자성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했

다. 그러나 이에 앞선 두 가지 혁명, 즉 구텐베르크로 말미암은 인쇄혁명과 르네상스로 인한 교양혁명으로 인해 그 짧은 팜플렛은 온 유럽에 혁명의 메시지로서 확산됐다. 애초에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돈으로 용서를 사는 면죄부를 질책하던 루터는, 나아가 사제 중심에서 만인사제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던 유럽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종교적 주제로 거듭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은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활성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많은 결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중세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었던 교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4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줬다고 분석한다(Four Ways the Reformation Changed Church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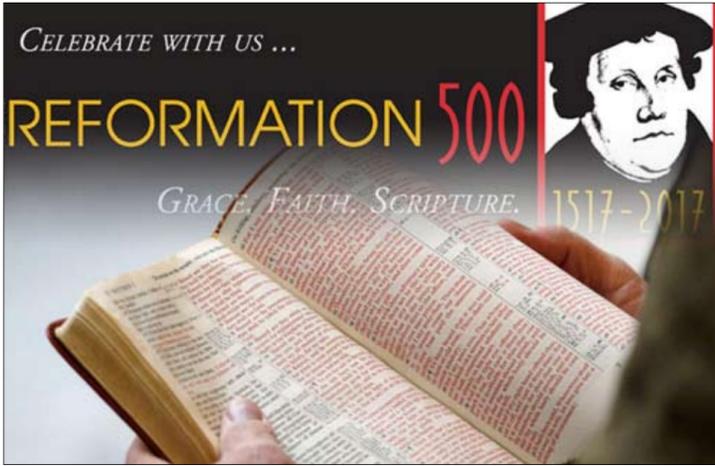
1. 종교개혁은 가톨릭 엘리트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예배를 만민에게 개방했다.

교회역사상 가장 큰 예배의 위기는 중세에 발생했으며, 종교개혁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한 운동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며 예배개혁이었다.

당시 로마가톨릭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러졌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사제들이 인도하는 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19세기 초까지 계속됐으며, 가톨릭 내부의 전례개혁운동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라틴어와 더불어 각 나라 언어 사용을 허용했다.

한마디로, 중세 예배는 라틴어를 모르는 신자들이 늘어나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신자들은 관객처럼 돼가고 제단이 높아지고 멀어졌으며 난간이 생겨서 신자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런 비극이 몇 백 년이 지나서 동안 제대로 항변하거나 잘못을 아는 자도 없었다.

마틴 루터는 이처럼 기존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폐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 라틴어로 돼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대중화에 기여했는데, 이러한 개혁 운동은 마틴 루터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중세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었던 교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한다.

가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재발견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루터가 추구했던 예배 개혁의 모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독일 미사와 예배 순서'(Deutsche Messe und ordnung Gottisdinsts, 1526)에서 예배 개혁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회중이 구경만 하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자로 자유롭게 해주었다.

둘째, 예배에서 설교를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구성 요소로 만들었다.

셋째, 예배의 제물로의 제사 행위의 개념은 미사에서 멀리했다.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만을 원칙으로 삼았다.

(3면으로 계속)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23일 제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하고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전임 이광모 회계, 최현준 서기, 임병남 총무, 김홍석 회장, 신임 이만호 회장, 정순원 부회장, 강영규 부회장, 이상호 감사. (기사 10면)

상대 입장 대보고 질문은 폭 넓게

리더십저널, '에미상' 수상자 F. 세스노의 '공감형 질문법' 소개

CNN의 간판 앵커이자 인터뷰어로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콜린 파월 등 저명인사들의 인터뷰를 도맡아 하며 수십 년간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프랭크 세스노(Frank Sesno)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준다(Ask More: The Power of Questions to Open Doors, Uncover Solutions, and Spark Change).

말 이상의 신호, 어조, 분위기 포착 온정과 관심 표현하며 적당 거리 유지

예전부터 가장 흥미를 느꼈던 질문이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날마다 일어나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은 인간성의 복잡한 면면을 파헤쳐 그 영혼과 경험을 깊이 드러낸다. 저마다의 우여곡절을 지닌 사람들을 3차원적으로 탐구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와 다르거나 잘 몰랐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공감형 질문'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행동, 생각, 공포, 감정을 유발하는지를 탐구한다. 사심 없이 순전한 호기심에서 상대방을 조명한다.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이 생각해보라는, 혹은 마음속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달

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때로 상대방은 폭폭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감형 질문'을 통해 소그룹 구성원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공감형 질문을 잘 던진다면 우리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 암 투병 중인 가족, 성격과 친구들 간의 서열로 고민하는 아이, 생활보조금을 받는 학부모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질문은 동료와 이야기하며 가족 갈등이나 사내 정치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게 하고 싶을 때도, 나와 출신지, 생활환경, 견해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도 유용하다.

공감형 질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질문을 통해 신뢰를 키우고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법을 알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봉운 목사 2면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3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투고칼럼 강승호 목사 16면

초대합니다 INVITATION

장로임직감사예배

Elder Ordination Service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일시 2017년 10월 29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KAPCQ (Main Sanctuary)

당회장 김성국 목사 외 임직자 일동
차상남, 최원일, 함용식, 남형욱, 채영주, 최시몽, 황태현

차상남
Sang Nam Cha

최원일
Brian Wonil Choi

함용식
Yong Sik Hahm

남형욱
Heyongwook Shine Nam

채영주
Young Ju Chae

최시몽
Symong Choi

황태현
Tae Hyun Whang

Northern Blvd.
Kisena Blvd.
Union St.
Bowme St.
Parsons Blvd.
Roosevelt Ave.
Sanford Ave.
Franklin Ave.

퀸즈장로교회 KAPCQ

미주 한인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지나친 자녀교육, 자유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시켜

NYT, '밀레니엄세대 자유에 대한 믿음 상실 위기는 과잉 양육 때문' 분석

젊은이들이 자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미국인의 약 30%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72%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1995년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10대 후반부터 20대 사이에 있던 미국인들 중 16%만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사상이라고 생각했다. 2011년 그 숫자는 24%로 증가했다.

어린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5년 한 조사를 통해 18세

부터 34세 사이의 미국인의 40%가 특정 형식의 공격적인 발언의 경우 정부가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X세대(Gen-Xers, 35세부터 50세 사이)의 경우 단 27%만이 그 주장에 동의했고, 베이비붐 세대(51세부터 69세 사이)의 경우 약 20%, 70세부터 87세 사이의 인구의 경우 단 12%만이 그 주장에 동의했다.

이처럼 유독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 세대에 편중되는 자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노스 카로라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클레이 루트리지(Clay Routledge)는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글(Why Are Millennials Wary of Freedom?)을 통해 부모의 지나친 교육 문화가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보수 사상가들, 특히 현재 대학문화가 좌편향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이 단지 대학교의 전반적인 좌편향 추세에 한 예에 불과하다. 물론 정치적 성향이 이 현상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유를 경계하는 이와 같은 추세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것처럼 보인다.

2016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진보적인 학생 집단과 보수적인 학생 집단의 대다수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육반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일과 같은, 매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느낌과 경험을 이제는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피해의식 문화는 전염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는 집단 역시 집단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물론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

공포는 수비적 태도, 자유보다 심리적 안정 선택 젊은 세대가 탐험, 실수, 실패, 감정적 고통 경험 스스로 공포와 스트레스 조절능력 기를 기회 줘야

발언의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인권기관(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in Education)은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데이 발표에 따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학생의 66%와 보수적 성향을 가진 47%의 학생들이 가끔은 학교에 초첨된 연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연사를 필요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9월 브루킹스인스티튜션(Brookings Institution)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학생의 20%와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학생의 22%가 필요한 경우 폭력을 써서라도 어떤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심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수많은 어린 미국인들이 이 태도를 유지하

는 것일까? 자유의 궁극적인 공포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육아 방식은 점점 보수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혹자는 이런 양육 태도를 '헬리콥터 육아(helicopter parenting)'라고 말한다. 헬리콥터 육아는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도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에 꼭 필요한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몇몇 연구자들은 헬리콥터 육아와 대학생의 낮은 자존감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한 연구 결과(The Decline in Adult Activities Among U.S. Adolescents, 1976-2016)에 따르면 요즘 10대와 20대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보

호에서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거나, 운전하거나, 데이트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독립심이 필요한 활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를 피해의식 문화(culture of victimhood)를 통해 더욱 악화시켰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특권을 가진 집단인 미국 대학생들은 어떠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라도 무조건 최대한 피하고, 심지어 학교에 보고하라고 교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 요즘 어린 사람들은 SNS를 통해 쉽게 남들로부터 공격받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요소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의식 문화는 이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포는 실패에 대한 공포, 조롱받을 것 같은 공포, 불편할 것 같은 공포,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들의 본질에 숨어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꼭 필요한 기도



김봉문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바울은 제 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배회야로 갔다. 그는 마치 3주 된 갓난아기를 떼어 놓고 온 엄마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 있다. 그가 갓 태어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안타깝게 드린 기도를 여러 중의 있는 국민들과 교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고 싶다.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바울의 이 기도야말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운 형제매들을 위하여 꼭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된다.

첫째,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살후2:16-17절상). 멀리 떨어져서 야손이라는 성도가 바울을 도운 일로 핍박을 받은 일과 핍박을 받다가 죽은 성도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어린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기도한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주일 밤 라스베이거스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으로 59명이 죽고 500여명 이상이 중상을 입고 고통 중에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로 알려진 그들 중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죽은 가장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아울러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 주신 위리가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신앙의 힘이 되기를 손 모아 기도한다.

둘째,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살후2:16-17하). 그는 어린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 성도의 길을 바로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았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한 바울의 말처럼 필자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이 필요하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학술대회 논문발표 기념예배 등 많은 모임을 통해 당시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해 본다.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법사에 특히 역경 중에 믿음과 영혼을 지키며 악하고 거저되고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닐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준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사40:30-31).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때로 독수리와 그 새끼들에 비유하셨다. 국조가 독수리인 나라 미국과 하나님을 믿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도 조용히 눈을 들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자고 말하고 싶다.

셋째,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살후3:16). 유대인들이 두려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셨다. 지금은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으신 평강이 또한 절실히 필요한 때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실제로 있는 평강이다. "평강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Peace is not absence of affliction, but presence of God)"라는 말처럼 비록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할 것이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꽃밭에 와서 예쁜 꽃을 따느라 엄마 손을 놓았다. 한참 양손에 꽃을 들고 기뻐하다가 보니 엄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울기 시작 한 그에게 숨어서 보고 있던 엄마가 나타났다. 아이는 다시 나타난 엄마를 보자 울음을 그친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한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꽃을 즐겼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평안하지 못하다. 미국도 교회도 우리의 이민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이 한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된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사역자들과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pwkim529@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성경으로 돌아가자” ...결국 세상 변화시켰다!

(1면에서 계속)

전에는 침묵 속에서 기도만 행했으나 이제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했다.

넷째, 성찬은 떡과 잔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

다섯째, 예배는 자국어가 사용되도록 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역설했고 그러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성경의 구절을 강조했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중심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됐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는데, 중세 가톨릭의 미사를 보는 시각적 예배에서 청각적 예배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빈 역시 1544년 로마제국회의에 제출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 제하의 변증서에서 그가 왜 교회개혁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설명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의견들에 의해 손상됐고 너무나 많은 불경하고 부정한 미신들로 왜곡됨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흉악한 오만무례로 모욕당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으며 그의 영광이 발아래 짓밟히고 있다. 오호라, 모든 기독교 세계는 공개적으로 우상숭배에 의해 오염됐고, 사람들은 그 대신 자기들의 허구를 숭배하고 있다. 수천의 미신들이 지배하고 있다!”

칼빈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예배가 타락하고 오염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원리에 따라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회복에 그의 생명을 걸었다.

2. 만인제사장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전개와 시도

만인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중보자 없이(without requiring a human mediator)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한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교리로, 한마디로 중세시대의 성직자 계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4-8절에 따르면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장이다. 이 교리를 따르는 서방교회의 여러 제도와 성례는 급변했다. 오직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성찬과 예배의 사역자(루터의 표현 minister)가 됐고, 성례인 성찬식에서 모든 성도가 16세기까지 제한됐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됐고, 제한됐던 찬송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변화했으며, 성찬식 성직자가 신자들을 바라보는 소통의 성찬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성도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

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성직자가 될 수 있으며, 성직자인 목사는 죄를 사하는 구약성경의 제사장적인 절대적 계급이 아니라 성직 그 자체로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책임지는 자로 변화했다. 성직자 즉 개신교 목사는 죄를 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 교회의 5가지 요소(예배, 친교, 교육, 선포, 봉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수호하는 이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구교의 교종(교황)과 성인과 마리아의 절대성과 중개는 부정된다.

그러나 만인제사장설이 성직자든 성도든 아무나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당시 로마가톨릭교회가 성직자가 하는 일은 성직으로, 신자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만인제사장설은 성직자와 성도의 역할에 구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가 하는 일인 설교, 성례전, 예배 집례 등의 목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종사하는 그들의 올바른 직업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이라는 뜻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성직자이든, 일반 신자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들의 직업에 의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3. 성례전의 회복

중세의 예배에 대한 신학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반복 혹은 재현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가톨릭 미사에서는 성찬 성례전을 미사의 절대적인 구심점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예배신학에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예배는 원래부터 말씀의 예전과 성찬 예전이 두 축이 돼있었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가톨릭교회가 지켜온 화체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것은 봉헌된 성물(Bread and Cup)을 앞에 두고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Epiclesis)를 드리면 성물이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다. 그 당시 화체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도 집례한 성물을 보지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결국 루터에 이어 칼빈과 쾰링거, 요한 웨슬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교회 안의 균형을 잃어버린 예전의 회복을 위해 말씀 선포에 무게를 두고 성찬에 있어서 성체공재설(Consubstantiation), 영적임재설(Spiritual presence)을 가르치고 회중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

특히 루터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는 가톨릭의 화체설과는 비교적으로 마틴 루터는 천주교교리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예수님의 육체가 빵 속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 속에

있는 것이지 빵과 포도주가 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에 쾰링거와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 하는 것이지 빵과 포도주의 본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영적임재설(Spiritual Presence)을 믿게 된다. 요한 웨슬리는 성찬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고 그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재생시키도록 돕기 위해 그의 은총을 보내주는 방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개혁자들은 말씀의 선포인 설교의 위치를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 위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씀회복을 위해 성경이 라틴어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고 설교가 회중들의 언어로 전달돼야 함을 강조하고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예전의식과 제도에 신학을 반영함으로 종교개혁이후 예전의식과 더불어 예배당양식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특별히 개신교 예배당에서는 강단이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성찬대는 그 밑에 두게 된다. 즉 의식 중심에서 말씀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4. 다양성 안에서 일치 추구, 복음으로!

무엇이 교회를 일치되게 만드는가?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것은 전통과 심지어 죽은 교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다. 그것은 로마가톨릭교회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 속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개신교로 하여금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보일 수 있는 여량을 갖도록 복돋운다.

교회 개혁의 핵심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되찾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일치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교회 일치의 중요성은 그것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하나님나라의 미래 친교,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새롭게 된 인류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울프하르트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는 “기독교 예규메니컬 운동은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정치 세계) 안에서도 다양성과 일치의 양립 가능성을 위한 모델을 동 시대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미션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만약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다원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정치적인 삶에도 유효할 수 있는 다원주의와 광의의 도덕적 일치 결합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타락은 예수 말씀의 진리를 가리는 것이다. 루터의 삶은 절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배 안에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에서 기독교인들을 일치시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교회는 개혁의 유산과 함께 융감하고 겸손하게 개혁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아야 한다.

공감하려면 타인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서 저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지금 무엇이 보이겠는가?

▲여유를 준다.

먼저 폭넓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다. (4면으로 계속)

원로칼럼



박준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헌금생활(하)

퇴원후 어느 날 우리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일천번제를 드리면 어떨까요? 일천번제 도중에 부르시면 가아겠지만 일천번제 끝날 때까지 살려 두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좋은 생각이네요. 당장 시작하지요.”

헌금은 가족의 동기가 필요하다. 함께 먹고 쓰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헌금과 나누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제안은 필자의 몫이지만 실행은 아내의 몫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경우 내조자가 목회 자체나 헌금생활에 동조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때 오는 피해는 가족과 교회에 큰 과장으로 다가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부는 철저한 동역자라야 하고 목회자의 상호 멘토라야 한다.

일천번제는 새벽마다, 주일 낮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드렸다. 매번 5만원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천번제를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는 교인 1천 명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일천번제 제물을 챙겨주셨고, 1천 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일천번제가 끝나고 지금 까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고 머잖아 사천번제 헌금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일천번제는 구약적 발상이라며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낮추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천번제는 그 행위 자체나 횟수보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의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솔로몬 왕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데 반해의 큰 뜻이 있다. 헌금 액수가 얼마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왜 드리는가’다.

필자의 경우 몇 차례 사선을 넘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자를 살리셨고 사역 현장을 지키게 하셨다. 구원하셨고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목회로 마침표를 찍게 하셨다. 그 주님께 무엇을 야기하며 어떤 일인들 주저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밝히는 축복의 원리는 ‘받고 드리고’가 아니라 ‘드리고 받고’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린 후 상상 못할 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린 후 엄청난 복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과 드림으로 받는다는 원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유소년 시절도 그랬고 청년기 역시 가난의 연속이었다. 고달픈 고학의 길을 걸어야 했고, 신학수업은 미국에 있는 교회의 독자가가 보내주는 장학금으로 이어 나갔다. 제 때에 장학금이 오면 등록했고, 오지 않으면 등록도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지만 드리기를 힘썼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힘쓰고 베풀고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유롭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행20:35)라는 말씀을 믿고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남아돌고 쓸 데가 없어서 헌금하는 목회자는 없다. 한국교회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목회자는 생계에 쪼들리고 있다. 생활비, 자녀교육비, 헌금, 나눔 등 쓸 것도 많고 줄 곳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최우선이다.

어느 교회는 해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수십억에서 1백억 대를 넘는다고 한다. 남은 돈으로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폭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남은 돈 처리를 놓고 당회와 제직회가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절절매는 것보다 여유롭게 남는 쪽이 훨씬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윌수 있는 것은 필자는 환영하지 않는다. 교회 헌금은 헌금자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값지고 멋있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를 내려놓고 난 지금 써야 할 곳은 점점 늘고 수입원은 줄고, 바로 이 대목이 한계이고 차이라는 느낌이 거세게 들곤 한다. 평생 목회의 동역자인 아내와 자녀들, 자신을 위한 욕망을 접고 드리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 준 아내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치하를 보낸다. 그리고 최상, 최선의 목회 동역자는 가족이며 배우자로 응원한다. 이 응원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iamcspark@hanmail.net

(1면에서 계속)

연구 결과를 보면, 공감 능력이 풍부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내며, 공감 능력이 있는 의사가 치료도 더 잘한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치료 효과 향상, 스트레스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1년 ‘미국의과대학협회 저널(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당뇨 병 환자가 공감형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혈당을 더 잘 조절한다고 했다. 암 환자가 자신에게 공감하는 의사를 더 신뢰하고 그런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질문을 통해 공감 관계를 형성하려면,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한인교회 부교역자 청빙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길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활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망)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11/20/2017 까지
2. 제출처: 사랑한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당목사: 하 재식
3. Email: lkc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담임목사 하재식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웬 난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들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총기사고로 지쳐있는 미국인들이 이제는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5일 현재 최소 31명이 숨지고 1,500여 채를 잿더미로 만든 북가주 산불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인 남가주 애너하임힐스의 산불...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역사

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 산불들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집을 싸고 대피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다. “조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이국땅에 사는 우리들은 요즘 조국이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제 3차 세계 대전이 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전쟁날 것 같으니 가지 말라고 소란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한국인들은 “왜들 이렇게 난리냐? 한국에 전쟁은 나지 않냐”며 오히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반응에 매우 의아해 합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입니다. 또한 한 나라 주변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강성입니다. 강성 러시아를 꿈꾸며 ‘철의 군주’로 불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장기 독재를 꿈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날 군국주의자로 불러라”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일본의 아베 총

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켓맨’이란 비난을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이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와 ‘화염과 분노’의 경고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초강성 안보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말 모두 대단합니다. 한반도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누가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웬 난리인가’며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

인 제자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었던 제자들이 배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초죽음 상태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며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물난리, 불난리, 지진난리, 전쟁난리... 난리가 난무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웬 난리인가’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조국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통일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 통일 한국을 유산으로 남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통일 한국을 통해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미

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필박받는 크리스천 형제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실 세 없이 밀려오는 재난과 사고들도, 전원이 감도는 한반도의 핵 문제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각종 테러들도 모두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시46:1-3).

푸/른/초/장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이번 주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이를 기념하고 현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종 미디어들이 앞 다투어 종교개혁에 관한 기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싣고 또 방영하며, 인터넷에도 여러 유익한 다큐멘터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에 관한 신간들이 출간되고, 각종 학술제와 포럼들이 개최되며, 의식 있는 교회들 또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왜곡들에 대한 질타, 뼈를 깎는 자성 요구,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방법과 제안들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우리 모두 지속적인 교회 개혁과 갱신을 이끄는 “반추하는 실천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작업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 또한 갱신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그 궤를 보관해오던 집의 아들들 옷사와 야효가 새 수레에 그것을 싣고 나옵니다. 곧 무슨 이유에 서인지 소가 뛰었고,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든 옷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행사가 취소되고 진행을 멈춘 하나님의 궤는 오벨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내 주제에...” 낙심한 다투의 모습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대체 옷사가 뭘 잘못한 거요? 아무리 봐도 그가 억울해 보이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세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합니다. 오늘도 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뭔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좀 경시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를 키우고 나서 이야기 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른 목적은 바른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편법이나 얕은 기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동기가 선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영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정석대로 오랜 수고와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 즉 기도, 말씀, 순종, 실험, 시행착오, 재현신... 그것들 외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지름길은 없습니다. 편법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날 옷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

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한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즉,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옷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로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교회를 살펴보면 저급한 죄인들과 무지한 한 대중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것이 자신의 천명인 줄 알고 사는 남녀들이 끔찍하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옷사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것인 양 당연히 자기가 그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삼상 7장), 그 집 아들 엘리야살이 그 궤를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는 옷사가 그것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지키던” 모습이 어느덧 소유의 의미가 더해져 “붙드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은

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힘, 능력, 권위를 절대화 하여 자기가 다 안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라 착각하며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저들입니다. 영혼의 귀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조차 사라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의 옷사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개혁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종교개혁을 반추하고 이를 이끈 영웅들의 용기와 사상과 방법을 공부하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명제들을 어떻게 현재화 시킬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오늘 이 옷사의 어리석은 모습을 거울삼아, 우리들 내면의 씨름도 함께 진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믿음과 사역의 여정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들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레스 옷사’의 사건을 내 것 삼기 위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십니까? ‘베레스 옷사’는 ‘페레츠’ 즉 ‘치다’라는 의미와, ‘우짜’ 즉 ‘힘, 능력, 위엄’이라는 그의 이름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 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이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베레스 옷사’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힘, 능력, 위엄이 있다면 하나님이 충동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충동하여 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목사님의 글 일부를 본 설교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말씀보다 자신의 경륜을 더 중시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적이거나 장식품으로 이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진리의 대가가 불이익일까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경건의 삶보다 아무도 모르게 욕망의 늪에 침잠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어떤 직책에 있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옷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흔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얕은 꾀, 바른 지 못한 방법, 스스로 만든 ‘옷사’라는 우상들을 먼저 ‘베레스’ 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충동 그 ‘베레스 옷사’가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베레스 옷사’ 합니다. 그 치열한 씨름이 자리하는 복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sinyikim@gmail.com

“종교개혁과 베레스 옷사 이야기” (사무엘하 6장 1-15절)

패역한 망나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패배를 거듭하죠. 순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실로라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진영의 맨 앞에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이겼던 적이 있지 않았나? 우리도 한번 해 보자.” 물론 폼은 났을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울리며 하나님의 궤가 맨 앞을 나아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따릅니다. 하지만 형식(Form)은 있었지만 의미(Meaning)가 따르지 못했기에 결국 저들 비극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 3만명이 넘게 살육을 당하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으며, 실상상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7개월 동안 저들의 다른 신상들이 박살이 나고 많은 이들이 독중으로 죽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저들은 그 궤를 벤세메스로 돌려보냈고 호기심으로 궤 안을 들여다 본 벤세메스 사람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 궤는 기랴아림으로 보내져 이스라엘의 성소, 또는 가정 성소쯤 되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해 줍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오늘 이곳의 우리들에게 옷사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방법 VS 사람의 방법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옷사 죽음의 첫 번째 이유는 저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이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정해진 레위인들만이 그 궤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 운반해야 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 집의 아들들은 새 수레, 즉 당시의 최신 운반기술을 사용하여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최신 모델 차량에 그 궤를 넣어 운반한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투박한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의도하고 진행하려 했던 많은 일들이 옳지 않은 방법과 과정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심지어 전쟁 등... 물론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흥양케 하고 조직을 견고케 하며 멋진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과 방법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

니다. 붙들다 vs 지키다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옷사 죽음의 이유는 좀 더 내면적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옷사가 잘못함으로 불미암아 진노하시”(7절)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성경은 이를 “irrelevant act” 즉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날 옷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옷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할 때 “붙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악하쯔”는 그 안에 소유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하며 붙잡을 때, 그 행위가 곧 “악하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명사 “악후짜”가 “기입” 또는 “재산”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그날 옷사는 “어, 우리 집 궤가 떨어지려 하네?” 그렇게 소유권을 의식하며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궤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의 집에 놓여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의 집에 있었어요. 너무 너무 친숙했어요. 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궤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손을 내뻗었고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의견은 참고할 만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옷사가 죽는 이유에 대해

헤로 인하여 우리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씨름하던 내 믿음의 수고가 어느덧 저기 저 추억의 책가방 속에 묻어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있던 무게중심이 어느덧 내게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야. 예수 믿는 것 너무 빠지면 끝이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 다 있는 듯 착각합니다. 늘 내가 중심에서 서서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내 맘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들었다 놔다 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뭘니까? 옷사입니다. “붙들다”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날 옷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의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종교개혁, 베레스 옷사 “여호와께서 옷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옷사라 부르니”(8절). 다윗이 이 상황을 충분히 여기며 그 땅을 ‘베레스 옷사’라 명명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옷사를 치셨다”는 뜻이죠.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옷사와 같은 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니 심지어 목

하나님의 궤와 옷사의 죽음 사무엘상 6장에는 성경의 난제 중 하나인 “옷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껏 다윗의 인생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어왔습니다. 기쁨부음,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과의 갈등, 광야 속에서의 고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왕위 등극 등... 우리는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이끌려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루어 죽은 옷사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왕국의 행성수로 정한 후 다윗은 그 성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하나님의 궤, 법

는 것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 몸짓, 표정, 눈 맞춤도 마찬가지다. ▲친밀한 거리를 형성한다. 온정과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질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공감형 질문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감형 질문을 하기가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한 중립점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 편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지점에 이르면, 비밀을 건드리지 말라고 종종 싸낸다.

각 사람이 보호하는 사생활 영역을 언제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파악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좀 더 얘기해주세요”에 의존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일부 주제와 관련해서는 선불리 대화를 주도하지

한다. 사람들은 말 외에도 다양한 신호로 감정을 내비치기 때문이다. 그런 신호를 읽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열심히 듣는 것이 바로 공감의 3대 조건이다.

않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린다. 공감형 질문을 할 때는 시종일관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말, 어조, 분위기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많은 유명 언론인들은 공감하며 듣기 위해 귀만 쫓고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3면에서 계속)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편안해하고 익숙한 토대 위에서 말하게 한다. ▲말 이상의 것을 듣는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신호, 어조, 분위기를 더 신경 써서 포착해야 한다. 말을 하다 잠깐 멈추거나 머뭇거리

는 것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 몸짓, 표정, 눈 맞춤도 마찬가지다. ▲친밀한 거리를 형성한다. 온정과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질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않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린다. 공감형 질문을 할 때는 시종일관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말, 어조, 분위기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많은 유명 언론인들은 공감하며 듣기 위해 귀만 쫓고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사람들은 말 외에도 다양한 신호로 감정을 내비치기 때문이다. 그런 신호를 읽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열심히 듣는 것이 바로 공감의 3대 조건이다.

않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린다. 공감형 질문을 할 때는 시종일관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말, 어조, 분위기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많은 유명 언론인들은 공감하며 듣기 위해 귀만 쫓고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할로윈의 기원과 현대판 할로윈...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할로윈!

언제부터인가 10월이 되면 "Happy Halloween" "Celebrate Halloween"이라며 할로윈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마켓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할로윈은 축하하며 기념할만한 날일까요?

어떤 유명하다는 미국의 교역자가 최근 "할로윈의 의미는 본래 좋은 것이어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열매"로 알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학부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입장에서 할로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할로윈의 기원과 현재의 할로윈의 실체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 Saints Day and Samhain - 모든 성도의 날과 삼헤인"을 알아야 합니다.

할로윈(Halloween)의 기원과 변형

할로윈의 시작-"All Saints Day And Samhain"

AD 600년경 케톨릭 교황 보니파스 4세(Boniface IV)는 5월을 All Saint's Day (모든 성도의 날)로 만들어 전 세계 케톨릭들이 크리스천 영웅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경축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연구까지 했고요. 당시에는 유럽에서 케톨릭의 압도적인 확장으로 "All Saint's Day"가 지배적인 휴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톨릭교의 주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 3세(Gregory III)가 나중에 유럽에 있는 이교도들의 축제를 없애고 케톨릭적인 축제로 대체하고자 "All Saint's Day"를 5월에서 11월 1일로 옮기고 10월 31일을 "All Saint's Day" 휴일 전야로 만들어서 전야일 이름을 "All Hallow's Eve" 또는 "All Hallow's Even"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Hallow"는 거룩, "Even"은 저녁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이 단축되어 "Hallowe'en"이 되고 오늘날은 "Halloween 할로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은 무슨 날이었나? 할로윈의 변질

11월 1일은 본래 Samhain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켈틱 축제(Celtic festival) 날이었는데 그레고리 교황은 Samhain 외에 다른 이교도 축제들을 없애고자 All Saint's Day 날짜를 5월에서 11월 1일로 바꾼 것입니다.

Samhain을 지키던 Celts(켈트)족은 2000년 전에 아일랜드, 영국, 북부 프랑스에 주로 살았던



유럽 사람들 그룹인데, 이들은 추수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가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한 다리라고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악령을 달래는 의식으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바쳤습니다. 내려오는 소문에는 동물 외에 더 끔찍한 희생들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Samhain이라는 이교도 축제를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 축제가 미묘하게 혼합되고 변질되어 할로윈 전야인 10월 31일은 Samhain 같이 죽은 영혼이 ghost(귀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믿고 악령을 위로하기 위해 사탄숭배자들이 하는 의식들을 답습하며, 이것을 마치 문화의 일부분인 것처럼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의 "할로윈"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로윈이 미국에 들어온 경위와 현 주소는?

할로윈은 미국에 1800년대에 들어왔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모여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정도의 친목행사로 시작되었으나, 1900년대부터는 유럽의 Samhain 이교도들이 행했던, 한마디로 사탄숭배자들이 하는 의식들이 미국 곳곳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할로윈은 사탄숭배자들이 스

로 밝히기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할로윈을 사탄숭배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Tvnex.org에 방문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21세기의 할로윈, 크리스천들의 태도와 성경적 관점은?

비록 할로윈 휴일의 기원에 "성도의 기념일"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할로윈에 이루어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로윈날 어떤 행사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메시지가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은 사탄과 귀신으로 "죽음의 축제"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견지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 될 만한 성경구절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성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역대하 33:6).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모든 악의 모습은 버려라-Reject every kind of evil.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딤후5:2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아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3-21).

sarahspring2009@gmail.com

할로윈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교회에서는 주로 Harvest Festival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들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재미 위주 내용들보다는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주제, 또는 영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내용 등을 파워 있게 채워나가면 좋습니다.

또는, 이웃이나 자녀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 배고픈 사람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의 개혁신학교에서 Heun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종교개혁의 히스토리"라는 책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 행위입니다. 오래전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미션'에 보면 과거에 노예상이었던 그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몸에 묶고 산을 기어오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카톨릭이 강조하는 속죄행위(penance)로서 제물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자기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죄 사상을 기초로 면죄부(indulgence)제도도 자리잡았습니다. 면죄부란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죄를 범한 신자가 재물을 봉헌하거나 큰 선행을 하면 죄를 면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거나 교황청 건축을 위해 물질을 드리면 큰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 친지의 죄값도 치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성인숭배입니다. 아무리 속죄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를 씻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는 다른 사람의 영적 계좌에서 빌려와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인들의 공로가 죄인들의 부족함을 메

속죄행위, 성인숭배, 화체설, 교회부패 대표적

어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인들이 평범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개념은 아주 매력적이어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인들은 교황청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성인숭배의 클라이맥스 역시 마리아 숭배였습니다. 나중에는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성유물(Holy relics) 숭배도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가시 면류관 조각, 주님의 세마포자락, 12사도들의 옷자락, 손가락 뼈, 목걸이 등이 고가로 거래되었는데 대부분이 가짜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입니다.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은 집례 하는 사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권세를 가진 사제나 주교 교황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부패입니다. 중세 카톨릭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서로 권력과 돈을 채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돈을 채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걷고 성직을 매매하며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사이에 대기실과 같은 연옥(purgatory)이 있는데 이미 죽어서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나 친척들을 위하여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들려 올라져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면죄부는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오만이 극치에 달함을 증명합니다. 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저항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기를 높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위임하였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이 카톨릭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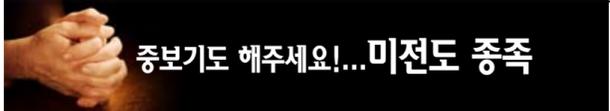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브힐랄라(Bhilala)



브 힐랄라족은 인도 중서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드하르와 자부하, 마드하 프 레 데 쉬의 서부 니마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브 힐랄라족은 과거 라지푸트족에 의해 정복됐지만, 라지푸트족의 친선정책과 두 종족간의 잦은 결혼으로 인해 반감은 크지 않다. 브힐랄라족은 13-14세기에 마드하 프레데쉬족으로부터 집입을 당하면서 이주한 라지푸트족과 빌족의 후손들이다.

삶의 모습

빌족은 과거 라지푸트족에 의해 정복됐지만, 라지푸트족의 친선정책과 두 종족간의 잦은 결혼으로 인해 반감은 크지 않다. 브힐랄라족은 13-14세기에 마드하 프레데쉬족으로부터 집입을 당하면서 이주한 라지푸트족과 빌족의 후손들이다.

빌라라족의 대부분은 농부나 소작농, 들판 노동자, 촌락 경호 등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가족화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빌라라족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작은 농장을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위층 브힐랄라족이나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한 부자들도 발견할 수 있다.

만도이(Mandoi)라고 하는 사람이 나, 촌락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가족 간의 유대식이 매우 강하며, 삶과 죽음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한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를 따르며, 재산은 남자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그것들을 소지하고 다닐 만큼 브힐랄라족의 상징물이 됐다. 브힐랄라족은 직접 수를 놓은 화려한 의상과 문신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수줍은 성격이지만 춤과 노래, 연극 등을 좋아하며, 다산은 남자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력을 불어 넣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브힐랄라의 성직자들은 중재자와 예언자, 치료사 그리고 송배자의 역할들을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정신과 소유를 상호호혜적으로 돌리게 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직까지 브힐랄라족을 전도하는 선교단은 없다. 허무허무를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절실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직까지 브힐랄라족을 전도하는 선교단은 없다. 허무허무를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절실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북침주의 대형교회 첫 여성 리더 임명

미국 윌로우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6년간의 숙고 끝에 내놓은 후임 발표로 미국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이벨스 목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사우스배링턴 예배당에서 40대 여성 헤더 라슨 목사를 교회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수석목사로, 30대 스티브 카터 목사를 설교 목사로 임명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하이벨스 목사가 은퇴하는 내년 10월부터 라슨 목사가 교회를 총지휘 감독하게 된다. 현재 윌로우크릭교회는 사우스배링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두 7개 지교회에서 매주 평균 2만500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슨 목사는 1998년 적십자 소속으로 재난 구호를 위해 시카고에 들렀다가 교회에 합류했다. 2005년부터 해외의 선교를 맡아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13개국을 돕는 사역 등을 펼쳤다.

그런 조직력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사실상 2인자로 교회 행정을 총괄해왔다. 목회자 자녀이며, 두 딸을 키우고 있다. 하이벨스 목사는 라슨 목사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로마서 12장 8절의 리더십 자질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카터 목사는 2012년 교회 설교팀에 합류했다. 하이벨스 목사는 카터 목사가 탁월한 소령력과 가르치는 은사를 지녔다고 소개했다.

크리스체니티투데이(CT)는 이번 결정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교계 반응을 소개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퍼스트나사렛교회에 여성목사로 부임한 타라 베스 리치 목사는 "하이벨스 목사와 윌로우크릭교회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며 "이번 결정이 북침주의 진영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1차 판문 통과

호주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모양새다.



호주에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참가자 10명 중 6명꼴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화의 1차 판문인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달 12일 시작돼 다음 달 7일 끝나는 만큼 반환점을 돈 상태며, 결과는 다음 달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폴(Newspoll)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59%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38%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전날 유고브(YouGov) 조사에서도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답한 사람 중 61%가 찬성을, 35%만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현 추세라면 향후 투표자 4명 중 3명꼴로 반대표를 던져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우편투표는 찬성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우편투표가 시작된 이래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5-61%, 반대가 32-39%가 나온 것과 일치한다.

호주 통계청은 17일 우편투표 참가율이 지난 13일 현재 67.5%라고 밝혔다.

동성결혼 찬성파인 보수 여당의 맬컴 턴블 총리는 우편투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 중간투표율과 찬성 비율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총리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라며 "호주인들 스스로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으며, 이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편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을 경우 호주 연방 의회가 투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보수 여당이 자유투표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표 분산이 예상되는 데다 주요 야당들이 찬성 쪽이어서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우편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방의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오랫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연방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IS, '칼리프국' 망상 소멸단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국가를 참칭하며 공포지배로 주민을 억압하고 국외에서는 테러조직의 대명사가 된 '이슬람국가(IS)'가 '수도' 시리아 락카에서 17일 쫓겨났다.



2014년 1월 락카를 완전히 장악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IS는 2014년 초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북부 지역의 대도시와 고대도시, 유전지대 등을 잇달아 장악, 점령지를 확대하고 기세를 떨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중동의 여느 무장조직과 달리 IS는 신성일치 '칼리프국가'를 선포한 뒤 화폐를 발행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등 주권국가 흉내를 냈다. 특히 IS가 락카를 수도로 선포하자 '칼리프국 이상향이 실현됐다'는 선전에 현혹된 세계 각지 무슬림이 시리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불발 점령지에서 엄격한 교리를 강요하며 지역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금과 고문에 공개처형을 단행한 공포정치는 일말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납치와 살해를 일삼고 이를 과시하며 소수민족을 성노예로 삼는 만행과 포악함으로 중동 수니파 국가와 공동체에서도 악명을 얻었다.

IS 발호로 시리아-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로 떠돌며 고통을 겪었다. 서방에서는 IS 조직원이나 자생 테러범이 파리 동시다발 테러나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를 일으키며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기세등등하던 IS는 2015년 하반기 미국 주도로 국제동맹군이 본격적인 격퇴전(작전명, Operation Inherent Resolve)을 전개하면서 물리적 기반이 점차 축소됐다.

올해 7월 경제 중심지 모술에서 패퇴해 결정타를 입은 데다 이날 '수도' 구실을 한 락카를 상실함에 따라 '국가'로서 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 도시 전체를 장악한 근거지라 할 만한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 몇 곳만 남았다. 공포와 테러를 수단으로 칼리프국을 세우려는 망상이 사실상 물거품 된 것이다.

군사·행정 수뇌부는 이미 수도를 포기하고 최후 근거지로 꼽히는 유프라테스 중류 계곡 일대 알부카말(시리아)과 알카임(이라크)으로 후퇴했다. 실질적 영토를 대부분 상실한 IS는 유프라테스 중류에서 최후 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는 한편 다른 주변 지역에서는 여느 무장조직과 마찬가지로 게릴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등 지부 조직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IS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신디케이트 형태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이제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단체 '보코하람', 이집트의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 알제리의 '알무라비툰' 등 지부 조직이 여전히 건재하다.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도 IS 연대 조직이 있다.

점령지와 조직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소멸해도 이데올로기 또는 프로젝트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유럽 등 각지에서 공격을 늘리기 위해 현지의 권한을 강화한 '분권형'으로 조직을 이미 재편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칼리프국가 수립을 이상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는 동력은 완전히 꺼졌다.

비영리 기구 국제위기그룹(ICG)의 IS 전문가인 리처드 앰우드스는 최근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에 "IS '브랜딩'은 점령지 확장과 칼리프국가 체제 유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실체가 사라진다면 IS는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 "北 핵킹, 역전력보다 빨리 성장"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킹은 핵전력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작고 빈곤하며 고립된 전체주의 국가에 완벽한 무기"라고 보도하면서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탈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전체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은 NYT 기고문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핵킹조직은 지난 1년간 세계 30개국 금융기관 100여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대만의 원동국제상업은행에서 6000만 달러(680억원)를 빼내려 시도한 핵킹들도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915억원)를 빼낸 '라자루스'도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NYT는 북한 핵킹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까닭에 서방 국가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美인론 줄들이 초청...국제 여론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북한이 잇따라 미국의 유력 언론인들을 초청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방송사인 미 NBC방송 데이비드 버디 부사장 일행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의 방북 사실을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방북했던 NBC 키어 시몬스 기사는 MSNBC 아침 프로그램 '모닝 조'에서 "모닝 조"를 매일 시청하는 북한 관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다녀온 미 언론은 NBC뿐 아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지난 5일 방북 르포를 통해 "북한 내부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14-19일 조너선 정 서울지국장을 평양에 보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다. 미 주간지 뉴욕 에반 오스노스 기사는 지난 8월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의 미 언론인 초청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태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떠보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은 북핵 해결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대신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방향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방북국 국회에서 연설하기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회 연설에서는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기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무장지대(DMZ)를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대신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등 안전 문제 때문에 DMZ 방문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관계자는 "안전이 우리의 고려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맞다면 점령지대 방문 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DMZ 방문을 피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지금까지 취한 대북 조치들에 미국도 고무돼 있다"며 "그러나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고 있고, 더 나아가 안보리 결의를 훨씬 넘어서는 독자적인 조치도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북한이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되돌리는 데 실패한다면 더 어두운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북 의사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해 카터의 방북을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싱가포르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단행했다"며 "그러나 제재 못지않게 대화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페인·카탈루냐 초강경 대치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누가 먼저 저 굴복하는지를 겨루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냐가 오



는 26일(현지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스페인의 최대 정치적 위기로 떠오른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는 양측의 첨예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타협을 도출할 만한 중간지대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 않은 카탈루냐는 26일 자치의회 특별회기에서 대내외에 독립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스페인과 '정면충돌'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카탈루냐는 지난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치른 뒤 고심 끝에 "독립을 선언할 권한을 주민투표로 위임받았으나 독립 절차를 유보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는 '동쪽 유권자의 42% 투표에 90%가 분리독립에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대북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카탈루냐 지방에 분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과 민족주의 분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한 거부감, '스페인 정부와 정면충돌만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스페인의 반응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독립 추진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당초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와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라는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카탈루냐의 대화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런 전망 빛나간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확산되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세 말에 한 마디로 '변화'가 상식이 되었던 시대이다. 사회, 문화, 문학, 경제, 도시, 사상이 포함된 총체적인 변화는 사상의 변화에 기인하였다. 중세의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의 결과물이었다.

중세교회는 1000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바위보다 단단한 전통을 남겼다. 유럽의 중세 세속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거의 동일하다. 교회가 사회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 말에 찾아온 사상의 변화로 인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교황과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성경의 지닌 권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었다. 과연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교회도 반드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진 것이다.

중세 교회도 성경을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 즉 성경의 자의적 해석도 성경 자체의 권위와 버금가는 것으로 여겼다. 종교개혁의 여명기에 활동했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1320-1384)와 얀 후스(Jan Hus, 1372-1415)와 같이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외친 선구자들은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외쳤다.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의 위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재발견과, 나아가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 사이에 야기된 혼동을 결말짓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닌 원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음성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 확고한 성경관은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어떤 전통이라도 성경이 잣대가 되어 검증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녔던 중세 말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일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다. 성경의 권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

규범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개혁 사상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다. 신앙 개혁 현재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어 팔리는 책이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

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여신한 것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후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20세 청년 마음을 갖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호령은 시간이 지난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찾으려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된 것이다. 즉,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개혁적 행동의 동기이며 내용이었다. 그 말씀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나아가서 개혁을 위한 그의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

부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당시 독일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 1546-1552)의 보조를 받아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서 스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 루터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매일 성경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설교하는 시간이 연속되면서, 결국 그가 마음에 품었던 개인 신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513년 시편 주해 강의를 시작으로 신앙의 안경을 찾더니, 결국 1515년 로마서 주해 강의를 시작한 후 성경에 제후된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탐실 체험'이라 부르는 이 사건의 특징은 그의 근본적 신앙개혁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20)



5대 개혁정신 (1) 오직 성경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종교개혁은 성경 권위 재발견, 성경과 교회전통간 혼동 결말짓는 계기되 루터의 개혁은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동한 교회개혁, 신앙개혁

기였다. 우리는 그가 중세교회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에 젖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교육받고 머물러 있는 신앙의 규범에 대한 비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였다.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만져 보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성경은 교회의 전유물이었다. 성도는 미사를 드리는 시간에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듣는 것이 성경을 접할 수 있던 전부였다. 성경읽기에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로서, 이 언어를 특별히 공부한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무슨 뜻인지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상 교회 개혁이었다. 그는 중세 1000년 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변형된 로마가톨릭교회를 향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힘있게 외쳤다. 그러나 더욱 엄격한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었다. 성경과 성령 루터는 자신이 일 년에 두 번씩 성경을 통독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성경이 지닌 능력을 깊이 깨달았고,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중세

자기 신앙개혁 목적으로 시작, 그의 활동 중심에는 항상 말씀 있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 '오직성경' 사상공개

중세 말 유럽 사회에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범람하였다고, 감히 교회를 향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루터의 개혁이 성경에 입각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 중에 후자를 선택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개혁은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한 것이었다.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작은 불꽃과 같이 경미한 것이었지만 전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은 루터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루터 개인이 지녔던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 중세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의 진리가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루터가 처음 성경의 권위를 경험한 것은 그가 에르후르트(Erfurt)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20살 때였다. 그는 그곳에서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교수들을 통해서 신앙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고전, 논리, 변증학 등의 과목을 통해 학문에 대한 눈을 뜨면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어느 날 도서관을 방문하여 직접 성경을 대하게 되었다. 잠시 사무엘을 읽고 한나가 사무엘을 헌신하는 대목을 읽은 후, 성경에 매료가 되었고 자신도 한 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을 읽은 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잠시 읽

중세 교회가 저지른 가장 커다란 영적 범죄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적 교리와 규범, 그리고 예식에 충실하려 하였다는 것이라 확신하였다. 가장 좋은 예가 있었다면, 바로 루터 자신의 신앙 상태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에 근거하였다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가지 사실은 그가 주도했던 종교개혁은 매우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가 교회의 전통에 속박되어 있는 성경을 신학과 삶의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개혁을 주도한다는 사명감 또는 영의의식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교회의 이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당시, 성경은 무엇인가 어둡고 분명하지 않은 책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성경이 어떤 책임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간 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의 영특함과 아울러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진지한 모습을 발견한 요한 스타우피츠(Johann von Staupitz)라는 좋은 스승이자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루터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면 평생사 마음을 지니고 있던 신앙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박사 과정을 공

오직 성경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바탕에는 '오직 성경'이란 불변의 사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에 관한 루터의 공헌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도들이 모국어로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분명 역사적인 일이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이 종교개혁의 불을 크게 피우는 일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사항은 루터가 그토록 중요하게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성경관을 자신의 성경해석의 근간으로 삼았다. 성경을 대하는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친히 우리 마음에 하시기 때문이다. 1519년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있었던 요한 에크(Johann Eck)와의 논쟁에서 중세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 사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로 인해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서구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신앙적 고민과 성경적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사비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비교회, 켈즈장로교회, 켈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리더십 코멘터리 (5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비장의 카드를 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싫어한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어둠에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9회 말 만루 홈런을 친 사람들이다.

"It's a blessing in disguise"이란 표현은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훗날 뒤돌아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blessing은 축복을, disguise는 변장을 의미한다. 번역하면 '그런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다. 살다보면 놀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면서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화위복이란 처음엔 위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일컫는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하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39세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려 휠체어를 의지하는 장애인이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국가적인 위기인 경제적 대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연설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뿐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호소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힘을 합쳐 경제 대공황을 잘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다.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 집중해

서 노력하면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전 세계는 테러로 인해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또 모든 나라들이 경제문제로 인해 큰 위기 가운데 빠졌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교회도 극심한 위기가운데 빠져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존재하고 인생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엄청

모험 연속인 인생은 기대/희망 가득... 염려 벼랑 끝엔 기회의 삶 있어 위기 극복하는 비장의 카드는 지혜... 성공 아닌 성실을 목표로 일하라

난 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돌이켜보면 위기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성장했고, 위기로 인해 우리 인생은 더 성숙했다. 우리 모두를 좌절케 만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는 무엇일까?

염려의 벼랑 끝에는 기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루시 쇼(Luci Shaw)의 '내 영혼의 번지점프'라는 책에 보면, 눈이 부시게 화상당한 어느 날 루시 쇼는 뉴질랜드에서 우연히 번지점프대가 있는 곳을 드라이브 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한다. 차를 세우고 잠시 갈등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번지점프를 두 번이나 하게 된다. 번지점프를 하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모험이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모험으로 미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좌절가운데 경험하는 염려의 벼랑 끝에는 새롭고 다른 차원의 도전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

르는 기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숨을 죽이고, 미지의 희미한 신비의 영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설 수 있는 바위와 같이 견고한 반석이 나를 맞이함을 체감하게 된다. 인생이란 모험의 연속이지만 그것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모험이고 염려의 벼랑 끝에는 기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실패에 정면으로 맞서라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다. 가난으로 인해 그는 학교는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가 9살이었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지없이 실패했다. 23살에 주 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하여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았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 29살에 의회 의장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다시 낙선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드디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는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쉽게 얻은 성공이 아니다. 그의 일생은 실패에 실패의 연속이었다. 링컨은 공식적인 실패만 27번이었다. 그의 성공은 남다른 실패에 실패가 밀려들어가 되어 이루어진 성공이었다.

우리는 실패가 이어지면 기가 죽는다. 실패가 이어지면 급기야는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지 않았다. 실패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실패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마다 비전을 더 높이 가졌다. 좌절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더 높은 목표로 도전했다. 위기의 시대에 링컨과 같은 도전정신과 용기를 가진다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멀리 않은 날 성공의 언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장의 카드는 지혜 파스퇴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고,

프랜시스 파크먼은 시력이 약해서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었으나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 받고 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게 의해 새로 쓰여진다. 태풍이 몰아치면 님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러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는 자는 시련과 위기를 '하늘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이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비밀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단장 '제리 폴란젤로'는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경영자였다. 소위 유명한 CEO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성

공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어 창조적인 내일과 미래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당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강인한 인상을 남기며 위기 속에서 결실을 맺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정신을 잃고 당황해 한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를 잘 선택하면 기회가 되고 성장해서 성숙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이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정신을 차려라. 위기를 극복하는 비장의 카드는 지혜임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위기를 위험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인생의 지휘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세례식 단상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다. 교회마다 일년에 한두번 행하는 세례식이지만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회중으로서 세례식에 참여할 때 이전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세례식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첫 걸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의미 깊은 예식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에 기초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식이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자칫하면 세례를 받는 본인이나 가족을 제외하면 세례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진정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마음 없이 회중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열 명이 넘는 아기들도 유아세례를 받았다. 긴 예배 시간에 정열대는 아기들을 달려가 주님 앞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고백으로 아기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온 젊은 부모들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뿌듯했다.

특히 이번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는 젊은이들이 더 귀하게 보인 것은 이제 곧 결혼할 아이들의 여자 친구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아이들의 여자 친구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아이들의 여자 친구와 헤어질 마음이 없어진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내 눈에도 성품도 좋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 감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왔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공부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다. 며느리 감이 결혼식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아들과 데이트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된다. 결혼식 날자는 다가오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나 기다리고 있지만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믿는 집이니 결혼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부모의 압력을 받고 싶지는 않다. 어쩌면 이미 압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서서히 며느리 감의 마음 문을 열고 기실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리라.

돌아보면 나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후 5년 정도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다. 물론 세례를 받을 당시의 내 마음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럼에도 나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채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확신으로 고백한 신앙을 가짐에 여기저기 찾아가 나를 찾아 오셨듯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우리 며느리 감도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례식을 보고 있자니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젊은이들이 더 부럽고 귀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 감도 저 청년들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유아세례를 받으러 부모님에게 안겨 단상에 올라간 아기들은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자 치우라고 밀어내기도 하고 더 어린 아기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손을 쳐다보기도 한다.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고 단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있을 그 날을 주실 것을 바라하며 지치지 말고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한 세례식이였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 김영길</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 521-0991, Fax: (714) 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 913-4499, Fax: (323) 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형락교회</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 227-1400 / Fax: (323) 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 김문수</p> <p>Tel: (323) 388-7101, (F) (323) 388-858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Tel: (562) 691-0691, (F) (562) 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Tel: (213) 481-2779 / Fax: (213) 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ca</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창수</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411 N. Figueroa St., CA 90248 www.dk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Tel: (213) 559-7228 (전통 목회), Tel: (213) 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www.mpcia.org Tel: (213) 367-2202 / Fax: (949) 857-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Tel: (310) 749-4756 2515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안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요</p> <p>Tel: (949) 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p> <p>담임목사 : 이영성</p> <p>Tel: (323) 641-0691 / y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성택</p> <p>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Tel: (213) 745-9191(CH), 사택: (818) 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교회</p> <p>담임목사 : 정상호</p> <p>Tel: (213) 245-4090 Fax: (213) 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 박경호</p> <p>www.irvinechurch.com Tel: (949) 857-9425 / Fax: (949) 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일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 엄규서</p> <p>Tel: (213) 384-7274, Fax: (213) 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안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www.tracemc.com Tel: (714) 446-6260, Fax: (714) 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Tel: (310) 325-4020, Fax: (310) 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Tel: (213) 749-4500, Fax: (213) 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p>	<p>종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www.socalmssunchurch.org Tel: (714) 949-9259 Fax: (714) 9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www.conestonely.com / e-mail: iatelo@conestonely.com Tel: (310) 530-4040(CH), Fax: (310) 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우준</p> <p>www.torrancejcc.org Tel: 310-370-3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조건 없는 사랑

조건(條件)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제라고 설명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고 상대가 있으면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답일 수도 있는 사랑도 여러 종류로 나뉜다.

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로망 하지만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은 오직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

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간, 가족 간의 사랑이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불렀으나 그것은 죄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기 전까지의 관계였다. 가장 고상한 사랑일 것 같지만 사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것이 남녀 간의 사랑 즉 에로스가 아닐까 싶다.

의 묘사(描寫)가 아프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깨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는 나라"(전3:1-8)는 말씀은 조건적이다.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던 거기에 거의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되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이기 때문이다.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10회 정기연주회 11월 11일(토) 오후6시 세계아기페션교회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강평근 목사 지휘 이재경 목사)가 11월 11일(토) 오후 6시 세계아기페션교회(담임 전용복 목사)에서 제 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린여성합창단, Los Angeles Young Players가 특별출연하며, 소규모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처음으로 목사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에 함께 공연을 갖는다.

하며 하나 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경 지휘자는 "연습할 때 한국, 한 곡 설명할 때 단원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를 잘해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 기도하는 분들이라 찬양가운데 영적 파워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러브호프투게더미션(LHP) 창립 3주년 연합감사예배에서 LHT 대표 김광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 섬긴다...11명에 장학금 수여 러브호프투게더미션 창립3주년 연합감사예배

러브호프투게더미션(Love Hope Mission, LHT 대표 김광빈 목사) 창립 3주년 연합감사예배가 22일 오후 5시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렸다.

된 감사예배는 김상현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광빈 목사가 '위로의 하나님'(고후1:3-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수영 집사(은혜한인교회), 조호준 집사(좋은나루교회), 김수영 집사(은혜한인교회), 풀 주씨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오페라 운동주가 LA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오페라 운동주에 참여한 라크마 멤버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페라 운동주' 미국 초연 라크마, 운동주 탄생 100주년기념 공연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열 번째 무대로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음악감독 윤임상, 연출 클라라김)

와 함께 '오페라 운동주' 공연을 20일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페라 운동주'는 대한민국의 시인 운동주(1917-1945)의 시와 생애를 바탕으로 한국 작곡가 황성곤

이 작사, 작곡해 2014년 발표된 한국 창작 오페라다. 2014년 일본 초연 이후, LA를 대표하는 한인음악단체인 LAKMA가 콘서트 형식으로 2015년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선보여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올해 특별히 운동주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페라 형식으로는 미주 초연으로 LA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이 올려졌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간 연방 정부에서 실시한 연방 정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대기자 신청에 250명 이상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연합회 대기자 250여명 도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프로그램 섹션8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간 연방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대기자 신청에 250명 이상을 도왔다. 지난 2주간 섹션 8 관련 전화 문의가 350통 이상 왔으며, 다수의 한민들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다.

장서비스를 실시했다. 한미연합회 로버트안 이사는 "이번 섹션 8 신청기간동안 한미연합회가 한인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한인 밀집지역에 저소득층 아파트와 같은 옵션이 많이 부족하다. LA 시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물론 이러한 공포는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것이 이 논의의 핵심이다. 우리의 문화는 젊은 세대가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런 위협을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더욱 친절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미국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불안감을 느낀다.

공포는 사람들이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사람은 보통 불안할수록 다양한 의견에 덜 귀 기울이고 다른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 사람은 보통 무서울수록 자기가 잘 아는 확실한 세계에 안주하고 물리적, 정서적, 지적 위협을 감수하기 꺼린다. 요약하자면, 공포는 사람들이 자유보다 심리적 안정을 선택하게 만든다.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들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우리의 잘못된 문화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세상을 탐험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하고,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고 스스로 공포와 스트레스를 조절할 힘을 기를 기회를 줘야 한다. 젊은 세대가 다시 자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소망소사이어티 세미나에서 최경철 사무총장이 강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10월중 교육세미나 3회 가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10월 동안 3번의 소망교육세미나를 각기 다른 곳에서 개최했다. 162차 세미나는 8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재외한인간호사회의 '제 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실시됐다. 유분자 이사장은 참석한 100여명 재외한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으며, 타인의 죽음을 묵도하는 경우가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비 교육과 소망유언서 쓰기'를, 카이론 토탈의 에린 김 임상사회복지사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강의했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삶의 마지막 숙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는데 아직도 소망유언서(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한민들의 이해 부족을 예로 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64차 세미나는 인랜드교회의 에버그린 부서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최경철 사무총장은 죽음준비 상황극을 통해 가족의 죽음을 맞게 된 경우,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실현함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목사회 정신건강 세미나

뉴저지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정신 건강 세미나'가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AWCA(9 Genesee Ave. Teaneck)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호영 박사(정신과 전문의/전 아주대학교 총장).

▲문의: (201)815-9254 총무 홍익석 목사

아가페장로교회 열방복음축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 8회 열방복음축제가 11월 5일(주) 오후 5시에 열린다. 매년 타민족을 포함한 10-12개 팀이 출연한다. 출연팀은 세라정(캘리포니아 콘테스트 노래부 분 대상), 크리스티나 러브리(슈퍼스타K 탑4), 유승우와 신디리(미주 가스펠스타 탑 10), 김준영(장예우 찬양사역), 드류신학대학원 중창단, 열방크리스찬밴드, ARISE(대학연합 미션댄스팀), DIM(청소년전도 밴드사역팀), Nancy Mingo 찬양밴드, Baker 찬양밴드, 세인트 마리 스페니쉬교회 밴드, 초대교회 찬양인도팀 등이다.

▲문의: (732)213-5856, Leaderconsulting@Yahoo.com

든든한교회 남일현 목사 위임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든든한교회 남일현 목사 위임식이 11월 5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141-33 33rd Ave Flushing)에서 열린다.

▲문의: (808)348-4655

스마트폰 기초반 강의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기초반(73기)가 10월 21일(토)부터 28일(토)까지 열린다. 강의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120분). '스마트폰의 기초 확실히 배우기'를 목표로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가 강의하는 기초반은 전화연락처, 메시지, 알람, 타이머, 사진, 영상찍어 보내기, 유튜브 보기, 인터넷, 카톡 등 스마트폰의 기초 과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며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한편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3개월 미만의 왕초보자를 위한 개인지도는 10월 21일과 10월 28일 기초반 시작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 무료 개인 지도한다. 선착순 4명.

▲문의: (718)414-4848.

중등부 사역자 청빙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가 파트타임 중등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시간은 금요일 저녁과 주일.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1.5/2세 영어권으로 이력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추천서(목회자 1통, 평신도리더 1통), 서류제출 마감은 11월 12일.

▲문의: (917)579-3267 이메일 apcedumistry@gmail.com

지휘자 청빙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2부 예배 성가대 지휘 및 금요예배 찬양인도(음선)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세례교인이상, 믿음에 확신 있는 자, 지휘 및 음악 관련된 전공자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사진첨부), 개인 신앙 간증문 1부, 추천서 1부. 모든 서류는 이메일 lilyumc@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516)466-8063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 23주년 부흥성회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회복’ 주제, 강사 백동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 23주년 부흥성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설립 23주년을 맞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교회) 초청 부흥성회를 가졌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로 섬긴 백동조 목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움 끝에 충신대학교에 입학, 목회자를 꿈꾸어 이룬다. 하지만 교회 개척 후 얼마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영육 간에 회복을 경험한 뒤 사랑의 교회를 목포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4일간 백동조 목사는 '회복의 자리'(왕하5:1-14), '행복하십니까?'(창32:24-30), '놀라운 회복의 복음'(삼상16:7-13), '진짜로 예수 믿으십니까?'(계3:14-22), '벼랑 끝에서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왕상17:8-16), '하나님의 마음 1, 2'(창22:17-18; 삼하7: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백동조 목사는 일곱 차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자는 환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며 결국 진정한 회복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10월 6일과 7일의 두 차례 새벽 부흥집회에는 장로,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 서리집사팀이 각각 찬양을 인도하며 제직으로서 역할을 먼저 감당했으며 모든 집회기간에는 매일 35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고, 마지막 날인 주일 말씀 시간에는 총 700여명의 장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전했다.

한편 백동조 목사는 9일과 10일 낮 시간에 필라지역 뿐 아니라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트로이트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가졌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뉴욕교협 제 43회 정기총회...임원선거

뉴욕교협이 지난 23일 제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만호 목사, 부회장에 정순원 목사를 선출했다.

임원선거에서 부회장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를 박수로 회장에 올리자는 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뉴욕교협의 영적 쇄신과 소통, 연합에 힘쓰고, 미자립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신바람 나는 교협, 행복하고 밝은 교협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경선이었던 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영환 목사(뉴욕호성교회)가 70표, 2번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가 99표, 무효 3표가 나와 아무도 3분의2 지지를 받지 못해 2차 투표에 들어갔으며 김영환 목사가 62표, 정순원 목사가 101표를 얻었다.

이후 김영환 목사가 후보철회 의사를 밝혀 정순원 목사가 당선됐다.



뉴욕교협 신임회장단. 왼쪽부터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강영규 장로.

평신도 부회장은 전례에 따라 현 교협이사장 강영규 장로(뉴욕늘기뽀교회)가, 평신도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상호 안수집사(뉴욕성결교회)가 선임됐다.

목사 감사는 현 감사 2명만이 후보로 등록해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김기호 목사(뉴욕중앙교회)가 유임됐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6교회 목사 총대 136명, 평신도총대 81명, 중경

회장 13명 등 총 230명이 사전 등록했으나 당일에는 1차 투표 172명, 2차 투표 163명만이 투표에 임했다.

회의는 회장 김홍석 목사가 인사하고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신제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이사회보고, 청소년센터보고, 신임회원 인준 및 환영, 회칙수정, 임원선거, 신구임원 교체, 신임회장 인사, 광고, 폐회기도,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이번 신임회원으로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 KAPC), 뉴하트선교회(정민철 목사, PCA), 은혜와진리교회(김화자 목사, ECA), 포레스트파크교회(나영애 목사, RCA)



참사랑교회가 설립4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 교회는 2009년부터 6.25참전용사 초청을 포함, 오픈커뮤니티 행사를 가졌다.

음악회, 오픈커뮤니티...후원금도 전달 참사랑교회 설립 45주년 기념행사 다양

롱아일랜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음악회와 커뮤니티 초청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1부 기념음악회는 외부 도움 없이 참사랑교회 음악부(성가대, 찬양단,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2부는 제7회 오픈커뮤니티가 진행됐다. 참사랑교회는 한국문화와 음식을 지역사회와 타민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09년부터 오픈커뮤니티를 시작했다.

은희곤 목사는 "1회부터 참석했던 한국인 참전 노병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희들은 이분들이 단 1분이 남을 때까지 한인교회로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정성껏 모시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한국인 참전군인 가족들, 입양아 가족들, 지역사회 공무원들과 다민족 다문화 주민들을 초청하여 교회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눴다. 은희곤 목사는 "2009년 행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망은 뉴욕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누고 섬기며 사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감사한 것은 뉴욕 한인교회들이 점점 더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3부는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기아대책기구의 아프리카 케냐 폼바사 제2의 우물파기 사역을 위해 7천불을 비롯해, 필리핀 감덴 마을(내과의사 지원), 추수감사절 터키 지역 후원, 참전용사들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특히 추수감사절 터키 1백 마리를 참사랑교회가 있는 헬스테드 타운의 단 라이언 시장에게 전달했다.

(기사제공: 참사랑교회)

“십자가 길 따르는 바보가 되라” 글로벌 뉴욕여목회 제 12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맹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매월 갖는 제12차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기도 심화자 목사, 설교 정양숙 목사(뉴욕한마음교회), 특송 안경순 목사, 합심기도 인도 나명자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오명희 목사, 광고 김희숙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양숙 목사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어떡세요?"(고전1:26-31)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안에 있다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우리는 분초마다 예

수님께서 자신 그 모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듯 주님께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떠나 사는데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바보 예수님"이라며 "주주의 계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섬김과 대속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버려져도 섬기는 종으로 사시는 아름다운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정양숙 목사는 지난 5월 암수술 이후 어머니기도회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함에 감사했다.

2부 친교는 황주내 전도사 기도로 진행됐으며, 친교후 새로 결성된 글로벌 뉴욕어머니합창단 연습이 있었다.

어머니합창단은 단장 안경순 목사, 지휘 김사라 목사, 반주 조문자 목사 등이 담당하며 크리스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락처: (646)247-8258(회장 권금주 목사), (347)885-2845(단장 안경순 목사).

(기사제공: 글로벌 뉴욕여목회)

가 가임됐다. 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박영수 목사, ARPC)는 이날 불참했으며, 가나안침성교회(김용해, 오순절성결)는 하나님의성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임을 보류기로 했다.

이외에 △재정은 교협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남은 재정은 다음 회기에 넘기라 △총대자격을 강화하라 △회비미납을 정리하라 △회비미납에 교협이 책임의식을 가지라 △회장과 동일교단 출마를 5년으로 하라 등의 건의가 있었다.

재정은 총수입 330,743.35달러, 총지출 310,378.35달러, 잔액 20,365달러로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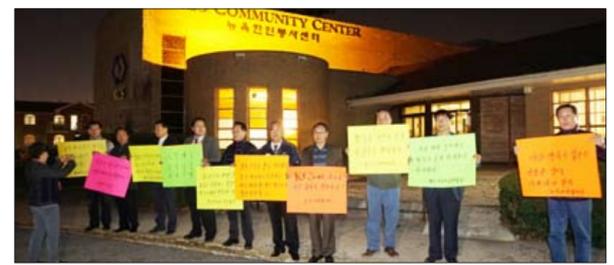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양민석 목사,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 말씀 방지각 목사, 헌금기도 허윤준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나니"(요15:1-10)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몇 시간 앞두고 있다. 역사를 보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실패의 원인이 중요하네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 시대는 진화론과 성경을 떠난 인도주의의 문제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주님의 말씀인 진액을 먹어야 한다. 열매와 기도응답은 상관관계가 있다. 주님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 43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신구임원들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이단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KCS한인봉사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 앞에서 박옥수 구원파 여신도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KCS, 기쁜소식선교회에 장소임대’ 반대 뉴욕교협 이단대책협의회 피켓시위

뉴욕교계가 지난 17일 저녁 7시 플러싱에 있는 KCS한인봉사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간에 기쁜소식선교회(일명 구원파, 대포 박옥수)가 KCS를 빌려 집회를 했기 때문이다.

시위에는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와 교협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회장 이종명 목사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기쁜소식뉴욕교회는 플러싱에 있던 건물을 팔고 롱아일랜드로 이전했기에 4일여 집회기간 동안 KCS 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 집회를 열었다.

뉴욕교계는 한인교계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받아 최근 구입한 KCS한인커뮤니티센터가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에 장소를 임대하여 준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박옥수씨 집회 대응에 앞장 서온 이종명 목사는 시위 도중 커뮤니티센터 직원의

안내로 KCS 김광석 회장과 통화하며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석 KCS 회장은 센터를 임대해줄 때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이에 대한 뉴욕교계의 우려를 위원회에 전혀 앞으로는 뉴욕교계가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석 교협회장은 KCS 직원에게 "한인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구입된 KCS 커뮤니티센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500여 한인교회들이 힘을 합쳐 매일같이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뉴욕교계는 뉴저지교계와 힘을 합쳐 2010년 박옥수씨의 맨해튼 집회에 맞서 2차례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기쁜소식선교회 이전 전 장소인 플러싱 172가 앞에서도 1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 뉴욕여목회 제 12차 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유축복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장향희 일산든든한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제 은혜한인교회 신유축복성회 강사 장향희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제로 19일부터 22일까지 신유축복성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장향희 목사(일산든든한교회 담임).

22일 예배시간에 열린 집회는 한기홍 목사의 강사소개를 받고 설교단에 오른 장향희 목사가 ‘깊어지는 신앙’(눅5: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향희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이 성경원리”라 말하며 “깊어지는 신앙은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장 목사는 “신앙이 깊어지는 자들은 사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

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며 겸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10차례에 걸쳐 말씀을 선포한 장향희 목사는 첫날인 목요일 저녁집회는 ‘믿음의 능력’(히 11:1-6), 금요일 새벽집회는 ‘고백의 신앙’(마16:16-18), 금요일 저녁집회는 ‘축복의 비결’(신28:1-6), 토요일 새벽집회는 ‘축복의 복음’(신28:6), 토요일 저녁집회는 ‘사명의 능력’(마18:21-35), 그리고 주일 오후 집회는 ‘성령의 능력’(행 2:1-4), 주일 저녁집회는 ‘제단의 불’(레6:12-13)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제12회 남가주 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가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불러 제12회 남가주 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

제 12회 남가주 연세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정숙)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총동문회장 방하섭) 주관으로 열린 정기연주회는 김기동 목사(연목회 회장) 기도와 방하섭 총동문회장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서 남가주 연세대학교 동문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 소천한 선배 동문 및 선각자들을 위해 마련한 모차르트의 레퀴엠 미사 D 단조(K626)를 비롯하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등 성가곡, 그리고 ‘하루애’, ‘못 잊어’, ‘정선아리랑’, ‘밀양렘소디’ 등 한국가곡, 민요, 가요를 선사했다.

특별히 성가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청중들과 함께 불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10월 가을하늘을 의미 있게 수놓았다.

또한 이날 바리톤 강주원(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이 찬조 출연함으로써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준호 기자)

‘복된 자의 비결’ ..찬양과 간증의 밤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창립 34주년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회장 박수잔) 창립 34주년 기념 찬양과 간증의 밤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6시 세리토스선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창남 집사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방상용 목사가 ‘복된 자의 비결’(마5: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방상용 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부적이 아닌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사회적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행복한자는 첫째, 자

유함을 느낄 수 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물댄동산 사역을 담은 동영상도 소개됐으며 물댄동산 청년부 형제자매들(지도 방인자 집사)이 장구연주를 하고 이승남 집사가 환영 인사를 했다.

이어 물댄동산 수어팀(지도 임은숙 권사)이 수어 찬양했으며 최영희 전도사가 간증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 이정열 자매가 게스트로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물댄동산 난타팀(지도 이서령 집사)의 난타연주가 있는 후 방상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주최 찬양과 간증의 밤에서 수어찬양팀이 공연하고 있다



이대 남가주동문합창단 13회 정기공연에서 합창단과 관객들이 교가를 부르고 있다

성가, 동요, 가곡...교가제창으로 마쳐 이대 남가주동문합창단 13회 정기공연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합창단(운영위원장 박화자, 지휘 이종현) 제 13회 정기공연이 22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희숙 목사 기도로 시작된 공연은 ‘십자가 지신 주님’, ‘참 좋은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등 성가곡, ‘노을’, ‘고향의 봄’ 등 동요, ‘야! 가을인가’, ‘도라지 꽃’,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가곡 등 세 스테이지로 구성해 진행됐다.

이날 동요무대에서는 ‘구슬비’, ‘

가차길 옆’, ‘퐁당퐁당’, ‘반달’, ‘땀 땀’, ‘산비람 강바람’ 등을 메들리로 불렀으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아니스트 김희정과 소프라노 강은희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바이올린 윤승경, 첼로 김원선, 피아노 주희정)가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이날 공연은 ‘친구의 노래’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교가제창을 다함께 부른 후에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제 13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

제 13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가 10월 28일(토)과 29일(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프레질힐에 위치한 First Christian Church(담임목사 Doug McCoy)와 오클랜드의 임마누엘파라브라교회(담임목사 Orlando Cerna)에서 열린다.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 할 지어다’(사96:3)라는 주제로 한인을 비롯 35여 다민족이 참가하며 주강사는 Rick Durst 박사. www.visionGIM.org

▲문의: (925)639-9527

종교개혁 500주년기념대회 및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종교개혁 500주년기념대회 및 2017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29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문의: (310)995-3936, (213)507-3875

제12회 캄코랄 정기연주회

제12회 캄코랄 정기연주회가 29일(주) 저녁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18800 Norwalk Blvd, Artesia)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는 두렘돈 장학재단을 후원하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로 열린다.

▲문의: (714)458-1525, 514-2611

제2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페스티벌

제2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오는 11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동문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설교페스티벌은 아사주퍼시픽대학교, 클레어몬트 대학교, 클레어몬트신학교, 풀러신학교, 게이트웨이신학교, 탈봇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미주장신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에반겔리아대학교에서 참가한다.

▲문의: (213)384-5232

지저스키츠 교사세미나

지저스키츠 교사세미나가 11월 4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길 목사 511 S Brookhurst Rd)에서 갖는다.

▲문의: (213)422-0022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개혁포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개혁 포럼이 ‘종교개혁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11월 7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논찬자로 이승현 박사(TS총장, 구약학 교수), 고태형 박사(선학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 역사신학 교수)가 나선다.

▲문의: (213)384-5232

이단대책 및 예방 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 연구회는 오는 10월20일(금)-11월24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이단대책 및 예방 세미나를 남가주프리미스교회(담임 황여호수아 목사)에서 오후 8시에 개최한다. 20(금) 신천지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27일 구원파, 11월3일 안식교, 17일 여호와 증인, 24일 가톨릭.

문의: (714)232-9776, (213)484-2574

남가주사랑의교회 의료사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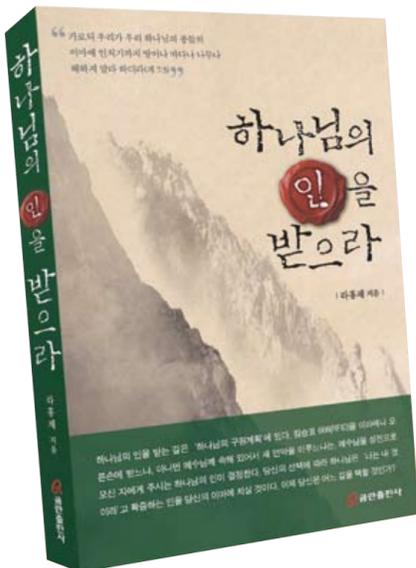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의료사역축제를 11월 4일(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기본혈액검사, B형간염, 전립선, 갑상선, 유방암검사, 독감예방주사, 체지방 측정검사/상하체 근육량 측정검사이며 유방암 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오는 29일(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의: (714)772-7777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타 교회 위임목사 '빼내기' 잇단 갈등

“검증된 목회자 모시자” 무리한 청빙

서울 영락교회는 이달 초 당회를 열어 총목 청주시 복대교회 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기로 하고 청빙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하지만 복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당회는 물론 교인들까지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사를 만류했다. 청빙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 7월 청빙을 마친 서울 새문안교회도 총력을 치렀다. 청빙 대상이 경북 포항제일교회 위임목사였기 때문. 해당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마음을 돌리게 해 달라’며기도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이 교회 목사는 청빙을 수용했다.

‘리스크 줄이자’ 위임목사 청빙 논란

“저희 교회의 청빙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절대 보낼 수 없어요.”

담임목사 청빙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교회 지도자인 담임목사 청빙은 시종 촉박 가운데 진행돼야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다. 다른 교회 위임목사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임목사가 청빙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력서에 기재되는 학력과 다양한 목회 경력 가운데서도 위임목사가 주는 매력이크기

때문이다. 교회법상 위임 목사는 70세에 은퇴할 때까지 해당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는 점이 안정감을 준다. 이른바 ‘청빙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이다.

영락교회의 한 청빙위원은 23일 “청빙하는 교회나 목사를 내줘야 하는 교회 모두 상처가 남게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빙이 급한 교회로서는 교회 안정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타 교회 위임목사에게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갑자기 목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교회는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다. 복대교회의 한 교인은 “목사님이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우리를 떠나려 했다’는 생각

에 조금은 서운한 감정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난 이후 지난 8월 청빙위원회를 꾸린 포항제일교회는 여전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뛰는 위임목사 몸값 VS 착잡한 부목사들

위임목사는 흔히 ‘교회와 결혼한 목사’라고도 한다. 목사 정년(70세)까지 해당 교회 목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임목사 제도가 무력화된 사례는 많다. 최근 한 교회 위임목사는 금요일 저녁예배 설교 말미에 “이번 주일을 끝으로 OO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다”고 말한 뒤 홀연히 교회를 떠났다.

물론 위임목사도 여건에 따라 교회를 떠날 수는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를 청빙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데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는 게 교계 정서다.

교회문화연구원장인 이의용(국민대) 교수는 “부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청빙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도, 위임목사가 교회를 옮

길 수도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교회와 결혼한 목사’로서 떠날 교회와 목회를 새로 맡게 될 교회 교인 모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빙 기준을 달리하는 교회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낸 서울 양천구 목민교회는 ‘현재 위임목사로 시무 중인 목사의 지원은 사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회 청빙위원장 이기철 장로는 “위임목사 청빙은 목사를 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부목사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한 현직 부목사는 “부목사들은 갈 곳이 없는데 위임목사들만 선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면서 “기회가 있어야 도전도 하는데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명단 공개와 관련, “단체명에 특정 종단 명칭을 사용했으나 해당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 건수는 주춤한 듯하지만, 영수증 발행금액은 다시 늘었다. 2016년 영수증 총 발행금액은 171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여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영수증 발행 단체 수가 7곳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단체당 불법 영수증을 발행한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정회계국장인 이식영 장로는 1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년 20여 회 진행하던 노회별 교회재정 세미나를 올해는 이미 30회 진행했다”면서 “교회가 정직한 영수증 발급, 지정 기간 내 세무서에 제출,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발급대상 보관의 3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수(이현회계법인 상무) 회계사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종교단체들이 ‘조세 범죄자’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수증 발급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도가 죄의식 없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체적 윤리 강령을 수시로 공유하고, 교회 내 재무회계 세칙을 자유롭게 열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교계 연합해 성소수자 전도운동 나서

한기총 등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 창립

한국교계가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도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전해 ‘탈(脫)동성애’를 할 수 있는 신앙적·영적 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개(個)교회 차원의 성소수자 및 탈동성애자 전도·구호 활동은 많았지만, 교계와 기독교단체들이 함께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계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성적 타락이라 비판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기독교성크랭크 등 교계 30여 단체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김삼옥로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여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한성연)’ 발기인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성연 창립총회를 개최기로 했다.

한성연은 성소수자 전도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대 사업 및 정책연구, 교육 및 문화·국제교류 사업을 벌인다. 또 탈(脫)동성애 인권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탈동성애 상담사 양성 및 상담센터 설립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각 교단 교수와 목회자가 참여하는 ‘한성연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성소수자 전도 및 구호를 위한 카페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등지의 탈동성애 크리스천들을 초청해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한성연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갈보리 채플서울교회(홍리교회) 건물 3층에 마련된다.

한성연은 설립 취지문에서 “한국교회는 성소수자의 영혼구원 사명과 함께 이 사회를 정화해야할 책임에 동참한다”며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수님을 영접해 탈(脫)동성애의 길로 돌아선 형제·자매들을 온전한 복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성연 상임대표에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다. 또 사무총장은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가 맡는다. 안용운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이사장은 “동성애는 미워해야하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할 대상”이라며 “복음으로 동성애자를 구원하는 일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성크랭크 대표 안희환 목사는 “동성애 반대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운동도 중요하지만, 동성애자들 자체가 배척의 대상이 될 순 없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라고 했다.

올해도 동성애 옹호론자만 초청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 해마다 ‘인권콘퍼런스’ 개최

서울시 주최로 17일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혐오 차별 논리를 주장하는 ‘서울 인권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성애자만 불러 동성애 혐오 차별 논리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2014년 교계지도자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권행사 때마다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만 발제자로 세웠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서울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으로부터 동성애자 차별·혐오 논리를 청취했다. 친구사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운동 단체다.

이 사무국장은 2014년 서울시민 인권현장 제정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동성애자들이 극심한 차별·혐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에도 반동성애 세력, 동성애 혐오세력의 공격이 있었는데, 시민인권현장 제정 논의 때도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대만 일본 동성애 운동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고위정책자문관을 불러들여 동성애 운동의 현황과 확산 전략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대응방안’을 주제로 동성애 운동가와 옹호론자만 불러 소수자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사유를 밝혔다.

콘퍼런스를 준비한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적지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 자료를 보면 동성애자들이 실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평등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토론시간이 짧은 데 찬반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 인사만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동성애 관련 차별 사례는 연평균 1건 미만”이라며 “차별받지 않는 동성애자를 박 시장이 인권행사 때마다 적극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해 “공표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회본질, 품격목회”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콤파트목회세미나 개최

콤파트출판사(대표 이형규 장로) 주최 제2회 콤파트 목회 세미나가 10월 30일(월) 오전 10시~2시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안영로 목사(예장 통합 전 총회장, 광주서남교회 은퇴), 장차남 목사(예장합동 전 총회장, 부산온천제일교회 원로),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대표,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장) 등이다. 이형규 장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무엇이 시급하고, 목회본질 회복과 품격목회로 가는 새해 목회 디자인을 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1강은 안영로 목사 “고백적 나의

목회철학”에 대해, 2강은 장차남 목사 “설교 40년의 증언”에 대해, 3강은 박종구 목사 “성서의 통전적 접근”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이형규 장로는 “지난 30년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 양서 3700여 종을 보급했다. 이번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콤파트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미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오찬과 강의 안 및 도서 3권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콤파트출판사(☎02-747-1004)로 하면 되고, 신청 순으로 좌석이 배정된다.

(기시제공: 콤파트출판사)

교인 과세 압박...투명한 회계관리 유의해야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적발 교회는 한 곳도 없다지만...

지난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 단체 가운데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부터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의 투명한 회계 관리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단체 수 및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55곳, 영수증 발행 총금액은 171억1300만원이었다.

이들 단체 가운데 46곳(84%)이 종교단체였고, 이들 단체 모두가 사찰 등 불교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단체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없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비교할 때, 개신교 단체의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국세청이 파악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에 포함된 교회는 2014년 4곳, 2015년 5곳이었다. 반면 불교계의 경우 2014년 89곳, 2015년 54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

도 존치를 위해 싸우는 중이다. 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존치 투쟁에 나서서야 겨우 재개발 도면에 종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16-17일 거여동 거암교회로 향하는 길은 유쾌한 강남 3구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거여역에서 거암교회를 찾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재개발 지역의 스산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여기는 ‘거여마천뉴타운’을 위한 한가, 공원 등이 근사하게 자리잡고 있다.

건물 철거 직전인 서울 거여동 2-1개방지구 내 거암교회. 1953년 설립된 이 교회는 자기 교회 땅과 예배당을 자기 돈으로 사고 새로 건축해야 하는 개발 논리 모순에 직면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부지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지구내 자기 땅을 가진 교회가 직접 도면에 종교구획 용지로 반영하지 않는 이상 종교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이 완료된 직후 상가 건물에 입주 가능할 뿐이다.

재개발조합과 교회가 협력 할 의했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할어버리면 법적 분쟁 등의 소지가 남아 종교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종교융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 등에 의해 도시 근교 지역에 건설된 750개 지구 택지개발 및 신도시에서 수천개의 교회들이 보상금과 분양대금 격차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 재개발대책위원회는 전국 곳곳의 재개발지역 내 교회가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암교회(1953년 설립)는 자기 땅을 갖고

성했다. 도시 빈민 진료를 위해 매주 교회가 합했던 흔적이다.

거암교회는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거여리 산 54번지에 설립된 농촌교회였다. 흙벽돌 단층 루핑 건물 52㎡(16평)에서 시작했다. 서유 명동 향린교회 전도지대 시찰단이 답사 끝에 세운 성전이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4차례 성전 이전 끝에 1998년 본당 및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대지 1500㎡(455평)를 확보, 지역사회를 중심시설로 남았다. 거암교회는 독거노인 봉사, 다문화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교육 소외자 지원, 지하철 문화공연 등 주민과의 접촉이 높았다. 재개발 전까지

지역 재개발로 교회가 사라진다

450여명이 출석하는 지역 모범 교회였지만, 재개발 과정이 길어지면서 교인은 300여명도 줄었다. 그나마 거암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토박이교회였고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땅 넓이가 작았던 2곳의 자가 교회조차 버티지 못했다. 나머지 31곳 임대 교회는 세입자들처럼 밀려났다.

재개발의 파고(波高) 속에서도 살아남은 서울 영리3주택재개발 지역 내 연산교회 예배당.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왼쪽은 주택과 상가들이 헐리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교회 오른쪽 아파트는 수년 전 재개발 완료한 아파트. 큰 교회는 남고 임대 교회들은 모두 사라졌다.

“1953년부터 있어온 교회 아닙니까. 3번째 예배당이 2-1지구내 있을 정도로 토박이 교회이죠. 우

리는 예배당의 존치를 원했죠. 그런데 조합측과 구청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해 2010년 지구내 시설 이전을 보장받고 동의했습니다. 서로 떨어진 교회 본당 및 사택, 서류상 등의 땅을 합하면 37층 2개동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협상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구 내 종교부지 대토(1388㎡)를 받아들였죠. 다른 교회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재개발 논리가 도리가 없더라고요.”

교회 이전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이병철 안수집사는 “고향과 다름없는 거여동은 1973년 편직가내수공업이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삶의 터였다”고 했다. 2-1지구내 세대주 800여명 중 원주민은 30%에도 지나지 않는다. 개발정보에 밝은 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듯 땅을 차지했다.

2014년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과 교회가 합의 도출을 못한 상태에서 교회 건물 보상이 무효화됐고 대토 부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조합 측이 교회에 34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업자들은 개발이 시작될 경우 높아질 땅의 가치를 미리 상정하여 수익자에 청구할 수 있다. 업자의 이익의 극대화다. 법은 이를 보장한다.

교회측 입장에서 보자면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이 밀려나는 것도 서러운데 내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예배당까지 지어놓았는데 어찌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조합측은 교회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무리한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고 매도한다. 교회로서는 어찌구무가 없는 일이다.

선교의 창 (89)

창조적 소수(The Creative Minority)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다가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비텐베르크대학교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붙였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지난 역사 가운데 루터가 없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 등 소수의 개혁자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날 뜻 깊은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위기의식 가운데 기독교가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즉, 창조적 소수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위협적인 도전에 부딪칠 때마다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응전을 펼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의 도전이란 무엇일까? 흥수나 가뭄, 흑한, 지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고 빈부의 격차나 도덕적 타락, 지도계층의 지도력 상실,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사회 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다.

2. 창조적 소수가 경계해야 될 일

인간의 역사는 생물과 같다. 끊임

양의 소금기가 온 바다를 정화하면서 무수한 해양생물들을 살아 숨 쉬게 한다. 사람들의 인생살이도 자연 생태계의 구조와 그리 다를 바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시대마다 바닷물의 염분과 같은 창조적 소수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다수의 오해와 압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애썼다. 중세의 교황이나 사제들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대표자들이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로마가톨릭 교황청에 고독한 승부수를 던졌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계 되고 시간도 질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절약된다. 결국 이러한 성과와 성장주의적 패러다임의 선교는 돈과 건물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후원교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과주의의 선교는 선교의 본질을 변질시킨다. 이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소수를 간과하기 쉽고 프로젝트형 과업을 지향하게 된다. 선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하게 되고 일의 노예처럼 탈바꿈하기 쉽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피골이 상진한 모습으로 변모해 간다. 이 현상은 보편적인 한국 선교사들의 실태이다. 행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은 선교사들도 여가져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초심을 잃고 지배적 소수가 되어 눈총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맺음 말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 역사는 흥하게 되고 지배적 소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 멸망이 온다.” 이상은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다. 창조적 소수란 공동체 역사의 선한 진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는 비전과 열정의 소유자이며 주인공이 투철한 사람이다. 공익을 앞세우며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응전(應戰)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보다 더 올바른 길이 다.

뉘니뉘니해도 사역자의 길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데 있다.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아버지(고전4:15) 멀리 내다보고 상고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NO CROSS, NO CROWN이다.

또한 끝까지 지배적 소수가 되고픈 유혹을 이기고 창조적 소수로서 시종일일(始終如一)해야 한다. 창조적 소수란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이다. 이는 구지 민족이나 선교 등 거창한 명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도 가장 요구되는 사람이다. 진정한 우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2.8%의 염분처럼 정직한 창조적 소수였는가? 아니면 안일을 빙자한 역사의 방관자였는가? 문제는 앞으로의 인생길에 있다.

song007@hanmail.net

선교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90% 헌신된 100 사람 보다 낫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사역 보다 창조적 소수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도 마찬가지로이다. 더구나 세상은 파가운 눈초리로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의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영안으로 크고 작은 사역을 조명해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목회와 선교는 결국 사람이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담보하겠다는 창조적 소수가 관건이다. 그들이 없으면 사역은 허실하고 힘을 쓸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 창조적 소수에 대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생각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갈파했다. 그는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란 문명의 위기를 미리 간파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문명을 쇠퇴하게 하는 도전의 기미를 누구보다 먼저 예민하게 인식하고 이에 올바른 응전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며 극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없는 도전에 변화를 거듭한다. 만일 밀려오는 도전이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문명이나 문화, 집단이나 위인들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적 소수’가 타락하여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요인을 토인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內的)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는 ‘휴브리스(Hubris)’라는 헬라어에서 연유한다. ‘휴브리스’의 의미는 오만, 자만, 신(神)들에 대한 불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ies)’가 이미 이룬 성공과 거기에 주어진 기쁨에 안주하여 자기도취 및 안일에 빠져 그만두면 그때부터 행세하는 집단인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ies)’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y)’는 누구일까? 역사적으로도 ‘창조적 소수’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창조적 소수’일 때의 사명감과 순수성을 상실한 채 오직 기득권에만 연연하는 자가 바로 ‘지배적 소수’이다. 문제는 ‘창조적 소수’가 사라지고 ‘지배적 소수’가 사회의 방향타를 잡을 때 결국 그 사회와 집단은 쇠퇴를 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3. 창조적 소수에 대한 사례

바닷물의 염분농도는 평균 2.8%로 알려져 있다. 3%도 채 안 되는 적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국교통일령(國敎 統一令)이 내려지자 청교도들은 미 대륙으로 건너가 성경 위에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지도록 기초를 놓았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위해 한 몸을 초개같이 던진 창조적 소수들이 있었다. 시대와 교회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엘리아,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과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 진실한 소수를 대표하는 십자가의 처형 수인(囚人)이었지 않은가?

4. 창조적 소수가 많지 않는 사역 현장

한인이 주도하는 세계선교 현장에 가장 큰 시험거리는 무엇인가? 가시적 성과주의이다. 70-80년대 미국에서 교회성장학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성장’(Growth)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서구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투자한 만큼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한다.

세속적 판단기준이 어느새 교회 문화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이에 새로 부임한 목사나 파송 받은 선교사는 심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자기도 영웅적 과업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 원한다. 그 방안으로 질보다 양에 집착하게 된다. 질은 잘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비해 양은 쉽게 눈에 띄



코스타리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을 시작하고도 엇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도 어느덧 삼분지 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에 비하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이곳 코스타리카에서도 예상치 않았던 심한 우기로 인하여 이곳 저곳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껏 잠잠했던 화산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며 점점 커진 한 바위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자연재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Rio Azul교회 소식입니다. 1. 지난 7월에는 정준성 목사님께서 답임하시는 뉴욕 주사랑교회 선교팀과 함께 찾아주셔서 치과, 내과, 안과, VBS 등을 통하여 Rio Azul교회 성도님들과 지역주민들을 기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정준성 목사님은 이



미 몇 년 전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곳에 오셔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사랑교회 답임으로 부임을 하신 후 첫 선교지로 이곳 코스타리카를 섬겨주셨습니다.

2. Rio Azul교회 중고등부 부흥으로 인하여 키보드를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주자 양성이 필요하여 김해린 선교사가 반주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이라 많이들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반주 뿐 아니라 믿음으로도 잘 양육되게 해 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Rio Azul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위치한 곳은 달동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길이나 도로가 포장되어있지 않아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도로로 통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현재 지역 사회에서도 Rio Azul교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앞 전면 도로는 비가 많이 오면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약 2천불 정도의 기금을 모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콘크리트 도로를 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해 주실 많은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 (14면으로 계속)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202)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ehs.org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llevue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기도회: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8: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2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llevue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1:30(EM)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수일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수 일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독자 투고

한성호 은퇴목사

“그 14만4천 속에 나도 있을까”

사법전문학교 게시판에 나붙은 예과 합격자 명단에서 작은아들의 이름을 발견하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 道(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세말로 명문(?)이라는 데를 그것도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게다가 매달 2백원(하숙생은 4백원)과 하루 3홉3작씩의 쌀까지 배급받아가며 공부하게 된 예비교사 후보생이라니... 그보다는 유복자로 태어났으면서도 기 안 죽고 과부의恨(한)을 풀어준, 아마도 그 때문이었겠지만... 4050시대를 북녘에서 살아온 필자의 먼 고향이야기다.

한국이 명문일색으로 바뀐 지 오래다. 대학입시는 기본이고 취직시험에다 심지어 아파트 청약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경쟁률 없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언젠가 서울에서 청소부 몇 사람을 뽑을 때도 수백 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란 적도 있었지만...

인류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목도하게 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세상 종말(메드트로서3장11~12절), 그 속에서 살아남을 성도의 수를 성경은 이미 예언해놓은 상태다(요한계시록7장4절, 14장1,3절). 14만4천이라고!

전 세계 약75억 인구 중에서 비기독교인 52억을 빼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신 구교인은 대략 23억에 달하고 그 속에서 다시 14만4천을 추려내면 무려 “1만6천 대 1”이라는 천문학적 경쟁률이 발생한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이를테면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만 그 믿음은 바로 1만6천명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뛰어 넘을만한 초 특급명품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과 대면 인사차 천국문전에 길게 줄지어선 한 떼의 무리는 아마도 구원받은 그 14만4천인인가 싶다. 현대, 갑자기 저 맨 끝줄에서 있는 목사 한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맨 앞자리로 손수 이끌고 나오시는 그분의 비민주적인 수상쩍은 행동을 보고 “아니, 천국에서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새치기라니요!” 어느 성도의 불멘소리에 “오랜만에 소천 한 목사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했다는, 14만4천! 아무리 영적인 숫자라 해도 이 寓話(우화)의 교훈은 하나다.

“구원은 목사 신분 자격으로 얻는 보증을수표가 절대 아니라...” 영생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누가복음18장8절)는 그분의 탄식은 아무리 성직자라도 예외 일수 없다는 경고의 뜻이리라. 과연 그 14만 4천속에 나도 있을까!

sungh33@hanmail.net

박해와 선교현장(4)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0%), 시아파 이슬람교(9.7%)
- 인구: 약 34,169,000명, 기독교인: 수천명(추정)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3위
- 수도: 카불(Kabul)-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부족간 적대감(Ethnic antagonism)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은 박해 점수 89점으로 2017년 세계박해순위(World Watch List, WWL)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작년 기록은 88점에 4위였다. 아프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전방위에 걸쳐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폭력 수위 역시 2016년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높게 집계됐다.

아프가니스탄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은 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친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입히는 배교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밀리에 개종한 이들은 개종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 아프간 일부 지역은 여전히 탈레반(Taliban) 치하에 있으며 권력 쟁탈을 위한 습격과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한다. 과거 이슬람 교리에 심취해 있는 탈레반 현 수뇌부는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작전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이로 인

해 국내 사상자와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9월 사이 민간인 사상자는 8,397명에 달했으며 총 382,371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Muslim Background Believer, MBB)이다. 개종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들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현지 사회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살해될 수도 있다. 무슬림 성직자들이 선동하고, 현지 관원들마저 합세하여 MBB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라는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끝내 이슬람교를 저버린다면 변질자로 간주되어 신변이 매우 위협해질 것이다.

부족간 적대감(Ethnic antagonism): 아프가니스탄의 사고방식에서 국가란 외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은 친족, 부족 순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국가의 중요성을 훨씬 능가한다. 아프간인들은 가족과 마을 그리고 부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투철하다. 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히 외래의 문

물을 수용하는 사람은 전통으로 회귀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다.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가는 소속된 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추방당하게 된다.

이는 모든 ‘일탈’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 탄압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독교는 아직까지 아프간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이슬람교에 적대적인 서구의 문명으로 간주되며,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은 모두 반역죄로 여겨진다.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수출 상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기간 빈곤에 처해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80%가 비공식 산업에서 비롯되며 조직적인 부정부패 및 범죄가 만연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빈곤계층에 속해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아편과 같은 불법 마약 생산이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귀비를 재배해서 얻는 수익은 밀농사 소득의 11

배에 달한다. 아프간의 아편 거래 규모는 공식 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한다. 탈레반은 마약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 밀매 소득의 70-80%가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아편 생산지인 남부 헬만드 주(Helmand)는 전체 양귀비 재배 면적의 50%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 탈레반의 수중에 있다. 2016년 10월 발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프간 아편 생산량은 2015년보다 43% 증가한 4,800 톤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경작지 면적은 1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무장 단체 지원에 사용되며 국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마약 밀매를 방해하는 대상은 누구든지 제거 당한다. 마약상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일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정된 박해는 아니지만(사실 기독교인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마땅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오픈도어)

(13면에서 계속)

4. 지난 6월에는 Rio Azul에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시던 Judy Muselman이라는 미국선교사님의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은퇴하신 후 이제는 쉬실 나이가 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곳의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10여년을 이곳 코스타리카를 섬기시는 가운데 6년을 Rio Azul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은퇴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은퇴식을 통하여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Purral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정준성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뉴욕주사랑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치과, 내과, 안과, VBS, 찬양 사역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

운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딸과 그의 자녀들까지 4대에 걸쳐 유전적인 시력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과에 가본 적이 없어 안경을 써보지 못하다가 이번 단기팀이 맞춰준 안경을 쓴 후,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날로 Purral교회에 등록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Purral교회는 내년이면 크리스천교육센터 시작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하루 빨리 크리스천교육센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지내왔지만 많이 줄어든 후원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후원교회들과 손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김혜린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2. Rio Azul교회 교육관 건축 및 도로 공사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3. David Núñez형제의 학비가 채워지도록.
4. Purral교회 교실 보수공사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5. 계속되는 Rio Azul교회 지도자 제자훈련과 반주자 교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6. 시온교회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7. 저희 가족을 위한 새로운 파송교회와 후원자의 만남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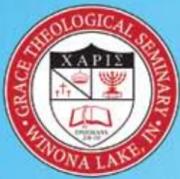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들어가 수술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기도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온전히 지기

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지내왔지만 많이 줄어든 후원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후원교회들과 손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김혜린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2. Rio Azul교회 교육관 건축 및 도로 공사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3. David Núñez형제의 학비가 채워지도록.
4. Purral교회 교실 보수공사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5. 계속되는 Rio Azul교회 지도자 제자훈련과 반주자 교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6. 시온교회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7. 저희 가족을 위한 새로운 파송교회와 후원자의 만남을 위하여.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c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4)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5)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다가 성경적인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다분히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은 “성경을 그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으니 교회교육 자체가 이미 성경적 통합교육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은 “그 무엇”을 가르치지 “성경적으로” 가르쳐

성경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이라 일컫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회들은 이를 그리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한다면, 이는 어쩌서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우리 교회교육이 성경적 통합교육이라 하기에 어떠한 부분에서, 무엇이, 왜 부족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먼저 교육의 목적 및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자와 피교육

목표들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 교회들의 교육내용 자체가 성경적 통합교육이라 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교육의 주된 내용은 성경말씀과 그 성경말씀이 주는 삶의 적용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교육내용은 우리 자녀들의 전 삶을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때로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교회들에서 성경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서 과연 그것만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를 묻어 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성경적 통합 교육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육의 내용이 성경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습득만 이라면, 물론 그것 자체로 귀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경적 통합교육 즉 성경을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하는 교회의 교육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해석의 틀 없는 교회교육은 불완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사, 교육방법... 삶에 녹는 교육이어야

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육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반드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진정한 구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 의미가 확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그 의미는 성경의 내용들을 교육할 때,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을 그 해석의 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들을 교육할 때,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해석의 틀 없이는 이루어지는 교회 안의 교육은 불완전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용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방법, 교육자의 태도, 관계성 등 모든 교육의 측면들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행하고 있는 교회교육에서 과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성경을

자, 그리고 교육의 방법(교육의 장과 시간)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그 상황이 워낙 다양한 관계로 이후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라는 카테고리 사용 하여 각각의 부분에서 현재 우리의 교회교육이 성경적 통합교육이라 일컫기에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들의 교육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기반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도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세워져 있더라도 교육자들 사이에서 편만하게 소통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우리는 큰 교육 목적에 합당한 세세한 목표들을 교회들 마다, 교육부의 부서들 마다 세우고,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교육에 임해야 하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시간 외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해오던 대로 각각의 교회학교들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 자체도 확고한 교육 목적 및 목표 아래 회복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 이것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일상적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까지 책임 있게 교육하고자 하는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적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준의 교회교육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만도 사실 교사의 문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더욱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일을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적, 도덕적 성숙을 일구어 가는 헌신된 교사 없이는 제대로 된 성경적 통합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한 우리 자녀들의 성숙 또한 목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교육 전체에 있어서 피교육자인 우리 자녀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선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로, 교육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예배 안에서도 공과공부 시간에도 일방적이고 주입식 위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은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 확신하는 교육이므로, 교육학적 발전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미덕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삼하21:1-6)

다윗이 왕이 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뜻은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므로서 피를 흘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묻습니다. 기도한 후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삼하21:2-6)

다윗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연고로 3년 기근이 있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려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손들을 즉시 내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신속하게 철저하게 공

과 사를 구별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3년 기근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브온 족속은 사울왕과의 원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인간의 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수 내가 어떻게 속죄하야(삼하21:3-6)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가 사울왕과 그의 집에서 시작됐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책임자였다는 자제로 최선을 다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42

장에 요셉의 형들이 큰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 배나뭇을 죽여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는 내 목을 담보로 책임지고 배나뭇을 데려왔다고 함으로써 결국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를 묻지 않고 다만 지금 앞에 닥친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삼하21:7-14)

다윗이 요나단과의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기브온에게 내어줄 때 므비보셋은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므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평생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늘 옆에서 도와주고 용기를 주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요나단이 죽어도 그 아들 므비보셋에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

남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은혜를 갚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맺은 신앙의 우정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계속되는 이 자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잊지 않고 평생을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삼하21: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온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삼하5:10). 본문은 다윗왕의 초기에 어떻게 다윗왕과 그의 나라가 날이 갈수록 더욱 승리하여 승리를 거듭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더욱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되는 블레셋의 공격에도 두려워않고 항상 맞서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천성 가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믿음으로 해결하며 나갈 때 항상 승리와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토 스루야의 아들 아버세가 다윗을 도와(삼하21:16-17)

다윗왕이 항상 솔선수범 앞에서 함께 싸우지만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블레셋의 힘센 장사들이 집중적으로 피곤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 아버세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성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윗왕의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솔선수범하되 누군가가 도와주고 아껴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항상 위험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온 세상에 도움을 주고 믿을 비추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아껴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h4>금란교회</h4> <p>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l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4 (131-231)</p>	<h4>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수요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h4>로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6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h4>새이덴교회</h4> <p>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철야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h4>성문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후 6:30</p> <p>Tel: (02)262-2646-3191~3, (0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2-808)</p>	<h4>성실교회</h4> <p>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02)2-996-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h4>성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p> <p>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h4>수정교회</h4> <p>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h4>승동교회</h4> <p>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번지</p>	<h4>시온소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왕동 419-2</p>	<h4>신길교회</h4> <p>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0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h4>신천교회</h4> <p>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백계동로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p>	<h4>신촌교회</h4> <p>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9-45 www.shinchn.org</p>	<h4>안암 제일교회</h4> <p>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02)926-926-4508 서울시 용인구 위례시로1길 50-1 www.anamjil.or.kr</p>
<h4>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로 415 www.yangokg.org</p>	<h4>왕성교회</h4> <p>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h4>장위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h4>주안교회</h4> <p>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h4>청주주님의교회</h4> <p>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h4>충신교회</h4> <p>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후고 칼럼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마음의 양식-종교개혁일에 부쳐

오는 31일은 "마틴 루터"(1483-1546)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교계에서는 부산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다. 개혁이란 사전에 보면 '새롭게 고친다'는 말이다. 개혁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말이다. 개혁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희망도 없고 무질서속에 답보 상태만 거듭될 것이다.

"마틴 루터"(1483-1546)의 종교개혁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로서 로마교황청의 95개 항목의 비리를 질타하며 비텐베르크 대성당 계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발표하면서 인간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는 기치를 내어 걸고 교황청과 맞서 싸울 때 세계 종교개혁 추종자들이 일어났으므로 개신교 출발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는 예수세 살의 나이로

망각자가 몰락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성욕에 빠져 눈앞이 밝힌 삼손, 이세벨 여인에 놀아났던 아합 왕,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상대하여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솔로몬 왕, 모두가 명예, 물질, 이성욕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정제불명의 교단을 만들고 감부싸움이나 하고, 우후죽순처럼 신학교를 세워 속전속결의 자질도 안 된 안수를 남발하니 저질 소리를 듣게 되고, 천국 가면 내 교단 내 교인 내 교회도 없는데 신기루 인생사를 모르는지? 예수님 자랑보다 자기네 자랑에 허세를 부리고 철새처럼 교단도 교회도 바뀌며 허세를 부리는 부류들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소망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삶의 암적 존재인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멀리 합시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신념과 개혁 정신은 같이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종교관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나 성도들(불신자도) 삶의 암적 존재라면 자신을 망치는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이다. 영의 눈이 어두워 이 세 가지를 분별 못하고 불행을 자초한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을 보게 된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다.

먼저 무상하고 허망한 '명예욕'을 놓치지 않으려다 몰락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경에는 명예를 고수하려다 죽음을 자초한 사울왕, 잘못된 처세술의 시므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다 비명에 간 요아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허만 등 수 없이 많다.

또한 '물질욕'에 빠져 불행한 최후를 마친 가롯 유다, 은혜를 망각했던 나발, 세상 물질에 빠졌던 롯의 아내, 탐욕으로 죽음을 자초한 발람이나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등 물질에 포로가 된 결과였다. 돈 때문에 도덕도 양심도 의리도 버린 자의 비극적 말로는 수 없이 보게 된다. 성경은 잘못된 물질관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다.

그뿐인가? '이성욕'에 사로 잡혀 자신을

예수 사람을 나누고 선교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나의 생명 유한성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엄숙히 자기를 점검하며 회개하기를 남기지 말자. 상천하지에 즐기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악의 뿌리인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멀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모범된 교단, 인격도 고루 갖춘 좋은 열매를 보여주자. 젊은 세대 현역들이 앞장서서 선배들의 자문도 구하며, 선배들은 뒤에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는 영계의 새 바람을 일으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충만의 역사가 확산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쓰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섬김의 삶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버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필자와 모든 분들이 힘써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오늘날 사회단체에서도 '지도자란 자기를 알리려고 미련한 자는 남을 탓하려 한다'는 말이 있다. 언행에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양면 출신수범의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격려하고 성원하며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gospel_5th@hotmail.com

해외기독교문학협회 수양회를 다녀와서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올 수양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 포코노에 있는 임마누엘 수양관(대표 윤영미)에서 열렸다.



첫날 예배는 황동익 목사의 야생마처럼 세상에서 거칠게 살던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간증 겸 설교가 있었는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 점심 식사 후에 근교에 있는 초콜렛 공장, 프릿즐 공장 등을 견학하고 수양관으로 돌아와 소나무 향으로 가득한 푸른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는 염소들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푸짐한 삼계탕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품과 선물권을 놓고 두 팀 나누어서 게임을 했는데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질세라 반칙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해주셨다(이름하여 행복 바이러스).

퀴즈와 게임 후 밖으로 나가서 머리위로 쏟아지는 은빛 별들을 보며 캠프 화이어, 고구마,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젊은 날의 노래들을 불러보기도 했다.

타오르는 불길에 발갈게 사위어 가는것을 보며 검은 재가 되기 전에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 우주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진술하게 써 나가리라 다짐해 보는 순간을 이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최광진 목사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열정적인 말씀으로 아멘과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온 역경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깊은 말씀이 있는 후 김해중 목사의 "영어 찬송시의 담긴 영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에반에셀을 노래한 459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스페포드(Spafford) 목사의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에 숨겨진 슬픈 사연, 부인과 네 딸들을 먼저 배로 프랑스로 보내고 본인은 후에 합류하려 했으나 그 배가 가던 도중에 영국 배와 부딪혀 침몰 하면서 부인만 살고 네 딸들은 잃게 된다. 그러한 절망 중에서도 4절 마지막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고백하고 있다.

이 곡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알고 난 후, 부르는 우리 모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조셉 스크리벤(Joseph Scriven) 목사의 "죄짐 말은 우리 구주" 487장도 첫 번째 약혼자가 결혼식 전날 물에 빠져 죽고 두 번째 약혼자도 병들어 죽고, 마지막엔 무일푼인 채로 라이스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나 나행히 깨어났고, 그의 찬송시를 보고 본인이 쓴 것이냐고 묻자, 하나님과 나의 공동작품

(The Lord and I did between us)이라고 답했다. 이 찬송시는 후에 많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다.

또한 찰스 마일즈(Charles Austin miles) 목사가 작사한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은 홀로 동산에 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맞이주시며 함께 걸으며 '너는 내 것이라'(He tells me I am is own) 하신 예수님과 만난 기쁨을 노래한 찬송시이다.

모두 함께 찬송하며 기쁨에 넘친 표정들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 그 분이 나를 당신 것이라고 하신다.

아름다운 찬송시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점심으로 바베큐를 준비해 주셔서 신선한 야채와 함께 맛있게 먹고 술 향내 풍기는 수양관을 뒤로하고 호수와 해변이 있는 역사 깊은 호텔을 둘러 잠깐 둘러보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리다. 아멘.

(조앤리)

10월 숲속의 한밤

곽상희 권사
(시인)



10월의 한 밤 숲속에 서니 말을 잃어버린다
단물 진 시간이 멈춘 하늘은 다정하여
낮게 숲으로 내려오고

별들은 높이 떠 있다
별들이 이곳저곳 잔뿌리 내려
내 안에 흩어진 세포들
타 오르듯 말 듯 순해진 세포들
별 하나 아아 감탄사로
내 손을 만지작거리고
희고 붉은 염색체의 구슬을 더듬는다

목마름은 그리듯이 고요하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 부끄럽게 고개를 돌리고
뜨거운 가마솥의 물이 끓는 목마름
별의 눈동자로
작은 흰 들국화 한 송이
원시로 돌아가 행복한 듯

'.....' 뜻으로 상상을 쌓아 올린다

<15면에서 계속>

일례를 들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배우던 방식과는 다른,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얻는 세대에 살고 있으므로, 소위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의 방법들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억압적으로 느끼는 교육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바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들, 즉 성경적 통합 교육이라 하기에 현재 우리 교회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